2011.04.06 NO.104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일본 방사능 영향없다
“우리는 선제 대응중” P25~40
소를 누가 키우냐고요? “다시 우리가 키웁니다” P14~15
소통의 달인 이외수, 공무원들에게 소통을 말하다 P12~13

원전은 환경원리주의로 풀 수 없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경제부문 선임기자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한반도 전역에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검출된 방사능의 양이 워낙 적어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해도 믿질 않는 눈치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의 방사능 유출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누출된 방사능은 지구 자전에 의해 일년 내내 부는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 대기 중에 흩어지거나 바다에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궤변이 횡행한다. 지구가 거꾸로 돌면 모를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자 국내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이 보인 첫 반응은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일본의 사고내용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대뜸 우리나라 원전부터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에서와 같은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일본과 같은 정도의 지진해일이 우리 동해안에 밀어닥치면, 그리고 일본 도쿄전력처럼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면 우리나라의 원전도 위험하다는 경고가 빗발쳤다.

얼마 전 국내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90퍼센트가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고 답한 반면 일반인은 43퍼센트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더욱이 일반인의 94.1퍼센트가 정부와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답한 것은 충격적이다.

원전 문제는 정치적 논란으로 풀어질 일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원전정책은 에너지정책의 일환이고, 결국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여기서 선택의 기준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안전성이다. 환경영향과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평가할 문제이고,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은 경제적으로 따져 볼 일이다.

원전정책은 에너지정책의 일환이고,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인가 선택의 문제다. 원전을 없애려면 당장 국민생활의 일부를 포기하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 무작정 원전은 안 된다는 환경 원리주의나 정치쟁점화로는 원전 문제를 풀 수 없다.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아예 원전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원전을 완전히 없애려면 당장 국민생활의 일부를 포기하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쓰면 된다지만 개발에 시간과 돈이 드는 것은 물론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석유나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뿐더러 탄소배출을 늘리고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크다.

이런 사정 때문에 세계 각국은 나름의 원전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원전사고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보완하자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됐다. 그럼에도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과 러시아는 여전히 원전을 폐기하거나 가동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원전 수출국 프랑스는 물론 영국과 스웨덴·핀란드 등 독일을 제외한 유럽의 원전 강국들도 원전가동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방법을 과학적으로 찾아보고, 우리 나름의 현실적인 원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작정 원전은 안 된다는 환경원리주의에 빠지거나 원전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는 결코 원전 문제를 풀 수 없다. G

Contents NO.104 2011.04.06 통권 205호

기획특집

일본에는 없는 한국의 방사능 대책

환경 위기와 자원 위기를 맞은 세계는 고유가에서 해방되는 대안으로 원자력 사용을 모색해 왔다. 농업 공업 의학에까지 두루 사용되는 원자력의 파괴성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안이 원자력의 이용과 관리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안전규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원자력 안전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표지 이야기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에서 '소통의 달인에게 듣는 대국민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씨.
사진 · 허재성 기자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4.0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46

50

52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7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복싱에서도 연기에서도 챔피언 되길!

"젊은 시절 복싱을 배웠습니다. 당시 복싱은 헝그리 스포츠였지만 인기도 많고, 챔피언 또한 많았지요. 복싱에 도전한 배우 이시영의 기사를 보고 복싱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신인 아마추어 복싱 우승은 평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복싱과 연기 양쪽에서 모두 챔피언이 되길 바랍니다." **홍경석 (대전시 서구 둔산동)**

에너지 개발 위해 힘써야

"'에너지 천수답 탈출에 국가 미래 달렸다' 기사를 읽고 석유나 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수입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개발 전담기구와 전담인력 확보 등 많은 대책이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배을순 (부산시 북구 화명동)**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워

"개항 10주년을 맞아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으신 인천공항의 숨은 주역들의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베스트 공항이자 동북아 시대 중심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격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인천공항의 사례가 모범축소판이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강창규 (대전시 중구 목동)**

당장에라도 전기요금 줄일 수 있을 듯

"'나도 에너지 절약 달인' 기사에 나온 에너지 실천법이 유익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제로하우스처럼 난방비가 안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너지 절약 실천법을 보니, 조금만 신경 쓴다면 당장에라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전업주부로서 작은 것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겠어요." **이보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바로잡습니다 3월 30일자 103호 8쪽 사진설명을 '분노와 상처를 잠시 접고 모금에 참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은 많은 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로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 아쉬워요

"제로하우스 건축비 궁금해요"

에너지 제로하우스 짓는 데 드는 건축비용이 궁금합니다. 지난겨울 맹추위에도 난방전력 마이너스인 에너지 제로하우스 기사는 고유가 시대에 눈이 번쩍 떠지는 반가운 기사였습니다. 그런 시설의 집을 짓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전흥진 (프리랜서 기자,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숲길 관련 용어 쉽게 통일했으면"

'좀 더 편하게 숲길 걸으세요'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걷기 문화를 선도할 산림청 '숲길정책팀' 탄생을 환영합니다. 숲길해설사도 많이 양성해 유익한 숲길 여행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아쉬운 점은 기사 중 '숲길, 둘레길, 등산로, 트레일, 트레킹길' 등의 용어가 혼란스럽습니다. 쉬운 말 하나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박동현 (회사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구제역 의문점들 먼저 되짚어줬으면"

'이번에 겪은 아픔을 뒤로하고 청정·선진 축산을 만들자'며 선진화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제역의 정확한 원인이나 위험성 등의 의문들을 먼저 되짚어주고 선진화방안을 설명해 주면 좋았을 것입니다. **송혜림 (대학생,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구제역과 공무원 사망 관계 알려줬으면"

'구제역과의 전쟁 116일 만에 끝' 기사를 보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 8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구제역과 공무원분들의 사망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희정 (취업준비생,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알립니다

가족 규칙을 법으로 만들어요

법무부는 가족 구성원이 꼭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을 헌법으로 만들어보는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우리 가정의 목표, 가치, 원칙을 함께 만들어보고 이를 잘 지켜나간다면 '가정헌법'은 우리 사회의 희망나침반이 될 것이다.

접수 기간 | 5월 1일까지
접수 방법 | 법질서 홈페이지 '가정헌법 만들기' 코너에 응모
결과 발표 | 5월 13일
지원 혜택 | 시상 외 소정의 상금 수여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기획단 ☎ 02-2110-3726 www.lawnorder.go.kr

'생활공감 녹색기술'을 공모합니다

농촌진흥청은 '2011년 생활공감 녹색기술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농산물 생산비용 절감, 농산물 마케팅, 농산물 이용 아이디어상품 등 총 15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국민생활과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형 녹색기술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

접수 기간 | 4월 22일까지
접수 방법 | **인터넷** 농촌진흥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접수
우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사 행정법무담당관실
결과 발표 | 5월 말 예정
지원 혜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 외 상금 수여
농촌진흥청사 행정법무담당관실 ☎ 031-299-2937 www.rda.go.kr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삑'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면 종료. 전화료 약 1백40원.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4월 1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돈을 부침.
3. 종이(紙)를 삶아 짓찧어서 만든 독.
5. 말하는 도중에,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할 때, 그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부르는 말.
6. 가자밋과의 바닷물고기. 두 눈이 몸의 오른쪽에 모여 있죠. "봄철에 먹으면 더욱 맛좋은 OOO쑥국."
9.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물질.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OOO 유입 감시 및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로
1. 어린 소. "구제역으로 몸살 앓던 축산 농가들이 OOO를 새로 들여와 키우는 등 새 출발을 하고 있다."
2.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온갖 것에 대한 감시·감독. "일본 원전 사고와 관련해 안전한 OOOO와 식수 감시망이 강화된다."
4. ♪~OO는 우리 땅~♬
7. 다락처럼 높은 곳에 만들어 꾸민 방.
8.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음. "네 힘으로도 충분히 OO한 일."

〈Weekly 공감〉 102호(3월 23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고조선 **4** 진달래 **5** 유자녀 **6** 구전 **7** 한주호
세로 **1** 지진해일 **2** 고래 **3** 선남선녀 **5** 유전 **6** 구호

〈Weekly 공감〉 102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선자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변윤아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안윤섭 · 경기도 광주 역동
이호선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정경희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

"대통령 편하자고 국민에게 부담 줄 순 없다"

이명박 대통령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변함없이 지속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익성이 없어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은 포기하지만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특별기자회견을 가지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후보 때 국민들께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할 때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저는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발생할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에 대한 강력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뤄 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안다"며 "비록 신공항은 여건상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역발전이 곧 경제성… 상충은 있을 수 없어"

이날 자리에서는 균형발전과 경제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경제성이 떨어져도 필요한 인프라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번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을 포기했는데 향후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균형발전과 경제성이 상충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과 경제성이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역발전이 곧 경제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낙후된 호남지역의 문제를 뒤로 미뤄선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서해안을 관광지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관광을 가려면 수도권서 가야 하나 거기는 접근성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호남고속철도를 가능한 한 빨리 만드는 것이 경제성을 갖게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의 이행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약한 것을 다 집행하는 것은 재정문제 탓에 불가능하며 개중에는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공약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용인시의 경전철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1조원을 투자해 준공했지만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준공을 해 놓고도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익성이 없는 공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공항은 경제성 떨어져 다음 세대에 부담"

신공항 역시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을) 집행하려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면밀히 기술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10조~20조원을 투자해서 매년 적자를 본다면 어려움이 있다"며 신공항 백지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사례를 들어 경제성이 결여된 신공항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건설 이후 운영상 문제로 적자가 난다면 정부와 지역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그 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공항 만드는 것은 재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운영을 하려면 일류 항공사가 들어와야 한다. 항공사는 수지가 맞을 때만 들어온다.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또 하나 생겨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토, 인구규모 등을 볼 때 무리가 있다. 일본이 간사이와 나리타공항 등 2개 정도의 허브공항이 있고, 중국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공항이) 있지만, 그곳들은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다. 이것(동남권 신공항)으로 상당한 기간 적자가 나면 지역과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신공항 백지화는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나는 결정만 하면 된다. 대통령이 욕을 안 먹는다. 그다음 대통령 중반기에 투자가 되면 다음이나 그다음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 세대에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생각하기엔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 저는 할 수 없다. 많은 세월이 흘러 상황에 따라 변하면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대통령 한 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에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생각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 저는 할 수 없다. 많은 세월이 흘러 상황에 따라 변하면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의지도 밝혔다. 다만 모든 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집행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신공항 백지화를 지방에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포기로 보는 시각도 있으므로 지방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지역 발전) 사업을 할 때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신속하게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보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공항이 있어야 산다는 판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남권의 주민께는 격려하고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 미래 위해 꼭 해야"

이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 선진화라고 생각한다. IT 분야나 모든 첨단산업 분야에서 앞서 가는 기술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됐다. 현재의 경쟁력을 다음 세대로 이어 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4월 5일부터 발효된다. 그때부터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면 상반기 중에는 국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G

글·변형주 기자

"2곳 모두 환경파괴 심하고 경제성 떨어져"

전문가 구성 입지평가위원회, 8개월간 공정·객관적 평가 후 결론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신공항 후보지가 부적합하다는 평가결과를 내놓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공항의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위원회의 평과결과는 밀양과 가덕도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운영상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공항 규모에 비해 건설비가 과다하여 신공항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위원장 박창호 서울대 교수)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후보지가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은 백지화됐다.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임무를 위임받은 후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3개 분야에서 공항건설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밀양과 가덕도 모두 1백점 만점에서 공항건설의 적합성 기준인 50점을 넘기지 못해 공항 부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과 가덕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인 경제성 분야에서는 40점 만점에 각각 12.5점, 12.2점을 얻는 데 그쳤다.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이다.

박창호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3개 분과(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20명의 위원이 지난 8개월간 전체회의 9회, 분과회의 12회 등 총 21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며, 그동안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토부의 신공항입지선정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박 위원장은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 연방항공청의 공항입지평가 기준 및 국내외 공항건설 시 사례 등을 감안하여 3개 분야의 10개 평가항목 및 19개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단 구성 풀(Pool) 81명을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입지평가위원회는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평가단 간에도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입지위원회는 지난 3월 24~25일에는 두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지자체들의 발표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밀양·가덕도 모두 적합성 기준 50점 못 넘겨

3월 27일에는 평가단 27명을 선정, 2박3일간 합숙하면서 평가작업을 진행했다. 평가단 27명 전원은 민간 전문가로 학계, 기업, 경제·사회·환경 연구기관 출신들로 구성됐다.

입지 평가위원회는 지자체 상호 간의 지적과 비방이 적지 않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공항 입지여건의 적합성에 대한 절대평가를 시행했다. 두 후보지 모두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어느 후보지가 나은지를 상대 비교하는 2단계 평가를 진행했다.

절대평가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널리 쓰이는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했다. 계층분석법은 특정 사안에 대해 대안을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널리 쓰이는 분석기법으로 복수의 평가기준을 설정,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공항 입지평가에서는 19개 세부 평가항목별로 현 시점에서의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할수록 1백점에 가깝게, 미흡할수록 0점에 가깝게 평가하도록 했다. 이렇게 절대평가를 한 결과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여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경제성 분야 세부 평가항목 중 공항수요(여객·화물 등의 수요)

정부가 발표한 동남권신공항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합격점 50점

※ '공역'은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전환수요'는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에서 옮겨오는 수요.

부문	항목	세부 항목	가덕도	밀양
공항 운영 (30점 만점)	장애물	고정장애물 (8.5)	5.2	1.5
		이동장애물 (3.2)	0.6	1.4
	공역(空域)	공역 (12.0)	3.0	8.5
	기상	바람 (3.2)	2.3	2.4
		시정 (3.1)	2.1	0.7
경제 (40점)	수요	여객수요 (4.7) / 화물수요 (1.2) / 전환수요 (1.3)	2.2	2.0
	비용	총사업비 (15.8)	3.9	3.7
	편익	여객편익 (5.6) / 화물편익 (1.6)	2.1	2.0
	건설계획	시공 용이성·확장성 (9.8)	4.3	4.5
사회 환경 (30점)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1.6)	0.6	1.0
		경제적 접근성 (3.5)	1.3	2.1
		이용객 접근성 (8.8)	3.0	5.1
	토지이용	토지이용·개발잠재력 (2.2)	1.6	1.4
		지역 파급효과 (1.8)	1.1	1.0
	환경	생태계 (4.6)	1.7	0.9
		소음 (7.5)	3.3	1.7

공항 운영 — 가덕도 13.2: 軍과 비행 공간이 겹치는 점이 단점 / 밀양 14.5: 부지 조성 위해 많은 산 깎아야 하는 점이 단점

경제 — 가덕도 12.5: 드는 비용에 비해 수요·편익 적어 / 밀양 12.2: 드는 비용에 비해 수요·편익 적어

사회 환경 — 가덕도 12.6: 소음 문제 적지만 접근성에서 낮은 점수 / 밀양 13.2: 접근성은 좋으나 환경·소음이 문제

부문에서는 7.2점 만점에 가덕도는 2.2점, 밀양은 2.0점을 받았다. 여객·화물 수요는 물론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섰을 때 인천공항 등에서 옮겨오는 수요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약 10조원 공사비에 비해 사업성 떨어져

시공의 용이성 및 확장성 점수 역시 두 곳 모두 가중치(9.8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평가단은 실제 공사가 이뤄진다면 밀양의 경우 24톤급 덤프트럭 1천2백40만대 분량인 27개 산봉우리를 깎아내야 하고, 가덕도는 24톤급 덤프트럭 8백70만대 분량의 흙으로 평균 수심 19미터의 바다를 메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 밖에 이용객의 접근성과 환경부문, 공항의 주변여건 등을 심사하는 공항운영 분야 등에서도 두 후보지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두 후보지의 공사비는 올해 기준으로 약 9조5천억원이며, 실제 사업이 시작되는 2017년 이후에는 최소 13조~14조원으로 늘어난다"면서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을 30개 정도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호 위원장은 "신공항을 염원하는 영남지역 주민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원들의 평가결과를 널리 이해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G

글·이상흔 기자

1인당 국민소득 3년 만에 'again 2만 달러'

지난해 GDP 성장률은 전년 0.3퍼센트에서 6.2퍼센트로 수직 상승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인구 2천만명 국가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속한다. 명목 국내총생산도 전년에 비해 21.5퍼센트나 늘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국민계정(잠정)'을 발표했다.

지난 3월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실질 GDP) 성장률은 2009년 0.3퍼센트에서 6.2퍼센트로 크게 상승했다. 건설투자가 부진했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약진이 돋보였다. 전기전자,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 대부분 업종의 생산이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전체적으로 14.8퍼센트나 불어났다. 서비스업도 3.5퍼센트 늘었다.

농림어업은 4.3퍼센트 감소하며 부진했다. 축산업이 도축 증가로 8.5퍼센트 증가했지만 재배업이 이상기온에 따라 농산물 작황이 악화되면서 6.8퍼센트 축소된 것이 전체 수치를 끌어내린 이유였다. 임업과 어업 생산도 이상기온과 태풍의 여파로 각각 전년 대비 7.2퍼센트와 6.3퍼센트 감소했다.

GDP 증가, 수출 밀고 내수 끌고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25퍼센트나 증가했다. 특히 기계류 투자가 대폭 늘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금속공작 및 성형기계,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전년에 비해 30.8퍼센트 상승했다.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주거용 건물의 경기 위축이 확대된 탓에 1.4퍼센트 줄었다.

민간소비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4.1퍼센트 늘었다. 승용차와 에어컨 등 내구재 소비가 특히 많아졌다. 11.9퍼센트 상승하

조선DB

2010년 우리나라는 3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했다. 민간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진은 롯데백화점의 가전매장.

며 전체 수치를 높이는 견인차 노릇을 했다. 지난해 역성장을 했던 의류와 신발 등 준내구재(8.0퍼센트), 식료품과 주류 및 담배 등 비내구재(3.4퍼센트)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한 무역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수출과 수입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출은 14.5퍼센트 늘어났다. 반도체, 자동차 기계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재화수출이 15.8퍼센트 불어났고 운수와 보험, 통신서비스 수출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수출도 6.1퍼센트 상승했다. 수입은 16.9퍼센트 증가했다. 재화 수입이 18.2퍼센트, 서비스 수입이 10.9퍼센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내수시장도 회복세로 나타났다. 2009년 마이너스 3.4퍼센트였던 실질 GDP에 대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6.8퍼센트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만큼 내수시장의 회복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천5백66달러 늘어난 2만7백59달러로 20.7퍼센트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약화가 상승폭을 키웠다. 저축도 많아졌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32퍼센트인 3백73조9천억원이 저축으로 이어져 투자 재원으로 활용됐다.

명목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1천1백72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0.1퍼센트 늘었다. 달러화 기준으로는 21.6퍼센트 증가한 1조1백43억 달러로 성장폭이 더 컸다.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9.4퍼센트 하락하며 원화가 강세였기 때문이다. 명목 GDP가 1조 달러를 상회한 것은 2007년 이후 3년 만이다.

실질 국민총소득(실질 GNI)은 전년 대비 5.5퍼센트 증가해 6.2퍼센트인 실질 GDP에 미치지 못했다. 교역 조건이 악화된 탓이 크다.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전년보다 늘었다. 교역조건지수는 2009년 91.0에서 2010년엔 90.8로 소폭 하락했다. 실질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가리킨다. 실질 GDI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은 빼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소득은 더한 수치다.

1인당 GNI는 2009년보다 3천5백66달러 늘어난 2만7백59달러로 3년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했다. 증가율이 20.7퍼센트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 약화가 달러 기준 1인당 GNI 상승폭을 키웠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 기준)은 1천1백69조4천억원으로 9.4퍼센트 증가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소비나 저축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을 가리킨다.

생산자 측면의 소득인 기업의 영업잉여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다. 영업잉여는 16.4퍼센트나 늘었지만 근로자들의 급여라고 할 수 있는 피용자보수는 2009년 4백93조7천억원에서 5백27조6천억원으로 6.9퍼센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총저축률 전년보다 약간 올라

이는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내부 유보나 재투자로 활용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영업잉여를 피용자보수로 나눈 노동소득분배율은 59.2퍼센트, 전년에 비해 1.7퍼센트포인트 하락했다. 저축도 많아졌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9.4퍼센트 증가한 데 비해 최종소비지출은 6.6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친 결과다.

1천1백69조4천억원인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68.0퍼센트인 7백95조5천억원이 소비로 지출됐고 32퍼센트인 3백73조9천억원이 저축으로 이어져 투자 재원으로 활용됐다. 총저축률은 30.2퍼센트였던 전년에 비해 1.8퍼센트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총저축액은 2009년 3백22조9천억원에서 3백73조9천억원으로 15.8퍼센트 증가했다.

정부부문 총저축률은 6.8퍼센트로 전년과 같았지만 민간부문은 기업부문이 늘며 1.8퍼센트 증가한 25.2퍼센트를 기록했다. 개인의 순처분가능소득과 최종소비지출액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증가한 탓에 개인의 순저축률은 전년보다 0.2퍼센트포인트 하락한 3.9퍼센트에 그쳤다. G

글·변형주 기자

소설가 이외수씨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연회에서 "소통의 핵심은 감성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소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소통의 달인' 작가 이외수, 공무원들에 한 수 가르치다

"소통의 핵심은 감성… 가슴으로 통하라"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설가 이외수(65)씨는 '소통의 달인에게 듣는 대국민 소통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문화부 1층 대강당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등 2백여 명의 공무원이 모여 '소통의 달인'으로부터 소통 잘하는 비결을 들었다. 이 강연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통의 핵심은 감성입니다. 감성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인간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하얀 옷에 진한 연두색 신발을 신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강단에 오른 소설가 이외수씨는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감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소통은 이성, 즉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방통행은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오고 가야 진정한 소통이 성립됩니다. 그냥 뜻이 오고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소통에 의해 변화가 초래돼야 하며, 그 변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름다운 것이어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완성됩니다."

이외수씨는 진정한 소통만이 국민의 행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사랑 받고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창조하고 육성하는 것이 문화라고 믿습니다. 행복의 핵심에 아름다움이 있고 예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과연 문화, 예술, 행복,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교육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은 인성교육보다는 성적 올리기, 스펙 쌓기에 급급합니다. 특히 도시 아이들은 심각합니다.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노동하듯이 공부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오고 가야 성립됩니다. 그냥 뜻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소통에 의해 변화가 초래돼야 하며, 그 변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름다운 것이어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완성됩니다."

또 요즘 학생들은 등수와 결과를 중시하는 시대에 살기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닌 '질풍로또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꿈꿉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불로소득, 무통분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땀 어린 노력이 없으면 결실도 없습니다."

이외수씨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머리 좋고 성적 좋은 사람만을 양성하려 한다고 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우수한 사람입니까? 성적 잘 올리는 사람이 정말로 바람직한 인간입니까? 저는 65년 동안 살면서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는 나라 말아먹은 사람 여럿 봤습니다. 남이야 슬프든 죽든 고통스럽든 상관없다면서 오로지 자기 영리만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체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 세상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많은 세상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소사 시절 4학년짜리 스승 만나

그는 부정하고 싶어도 대한민국은 학연·지연 공화국인 건 확실하다고 했다.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녔고 7년이 넘어 제적당했습니다.

당시 제적을 당하고 취직이 안돼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도 취업하기 어려웠는데 중퇴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운은 가까운 데에서 왔습니다. 당시 3개 매체의 신춘문예에 당선된 친구와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저는 화가 지망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원고지를 주면서 '너도 해 봐. 할 수 있어'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의 권유로 글을 쓰게 됐고 〈강원일보〉 신춘문예에도 당선이 됐습니다."

신춘문예 당선 이후에도 이외수씨는 강원도 인제 남초등학교 객골 분교에서 소사로 일하며 문장연습을 했다. "전교생이 17명이었고, 학생들 월 평균 출석일이 3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문장공부를 제대로 했습니다. 제 홈피 약력에 춘천교대 중퇴보다 악착같이 넣는 게 객골 분교 소사입니다. 왜 제가 이 이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4학년짜리 스승이 저로 하여금 세상 만물과 소통하는 비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당시 이씨의 즐거움 중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와 개구리 잡으러 가는 것이었다고 했다. "양동이, 매미채, 지렛대를 들고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이가 가리키는 돌을 들추면 항상 개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에게 '어떻게 알아내냐'고 물었더니 '딱 보면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딱 보면 아는 것이 바로 감성입니다."

그는 화천 산천어축제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20일 정도 열리는데 여기에는 1백만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이 축제로 화천이 1년 동안 먹고사는데 지난해에는 구제역 사태로 취소가 됐습니다. 저는 트위터를 통해 찐빵을 팔았습니다. 이틀 만에 5천 개가 팔렸습니다. 트위터(팔로워 수 69만7천여명) 대중과 소통을 한 거죠. 그런데 트위터 등 SNS의 장점은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은 정보와 그른 정보를 걸러내는 것은 개인의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통로를 열면 정부도 '소통의 달인'

'트위터계의 간달프'로 불리는 이외수씨는 "20세기가 이성이 주도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부터는 감성이 주도하는 시대"라고 했다. "강원도 화천군에 오시면 이외수가 촌장으로 있는 '감성마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화천군의 지원을 받아서 그 공간을 감성체험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구제역 때문에 된서리를 맞아 가지고 잠깐 패닉상태에 빠져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만 있다면 그 공간은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유일한 감성체험 공간이 될 겁니다."

이외수씨의 강연이 끝나자 공무원들과 공감코리아(www.korea.kr) 정책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북한과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도 이씨는 명확하게 대답했다. "저는 어떤 정치가이든 자신의 백성을 굶기는 정치가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이 압록강을 넘어 도망치는데 뒤에서 총을 쏜다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이길 포기한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정치는 인간의 행복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소통의 달인이 되려면 국가와 국민의 의견이 오고 가는 양쪽 통로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G

글·서일호 기자/사진·허재성 기자

“소를 누가 키우냐고요? 역시 우리죠”

가평 축산농가들, 송아지들 재입식… “보기만 해도 좋아요”

구제역 삭풍 속에서도 축산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국의 6천2백여 축산농가가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처분의 아픔을 겪었지만 구제역이 그들의 꿈까지 꺾을 수는 없었다. 이번 구제역으로 매몰처분을 받은 축산농가들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경기도 가평군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들을 재입식했다.

조선DB

구제역으로 소를 묻었던 경기도 가평군 신하리 신우주목장 김보영·이명화 부부가 밝은 표정으로 새로 들여온 송아지들에게 사료를 먹이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 하면 신하리 218번지. 하면과 외지를 이어 주는 현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 구제역으로 기르던 젖소들을 살처분했다가 최근 재입식을 한 신우주목장이 있다.

“잘들 먹어라.”

신우주 목장주 김보영(55)씨는 아직은 축사가 낯선 송아지들에게 여물을 주고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봤다.

“보기만 해도 좋아요.”

김씨는 송아지들을 새로 입식한 지난 3월 24일 이후 매일 아침 6시쯤 소여물 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텅 비었던 축사에 8~9개월 된 한우 송아지 암컷 13마리가 들어오면서 썰렁하던 목장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새로 송아지를 들여오기는 했지만, 착유가 가능한 젖소가 아니라 한우이기 때문에 젖소를 기르던 이전에 비해 일이 줄었다. 손을 놀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요즘 그는 인근 골프장 등을 돌며 잔디를 깎는 일도 하고 있다. 하루 일당 5만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사료값이라도 벌자는 심정으로 한다고 한다.

축사 뒤편에 파이프들이 솟은 흙바닥이 있다. 젖소 38마리를 매몰처분한 자리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지요."

김씨의 부인 이명화(51)씨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듯 매몰처분한 자리를 바라보던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다. 김씨도 "나 원 참, 그런 경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지" 하며 뒷짐을 지고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흙더미를 바라봤다.

지난해 12월 24일, 구제역 통보를 받은 지 이틀 만에 김씨 부부는 20년간 키우던 젖소 38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김씨는 자신의 농장이 구제역이 발병한 다른 농장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문단속 잘하고 조심하면 괜찮겠거니 했지만, 전국을 휩쓴 구제역이 김씨의 농장만 비켜 가 주지는 않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자식 같은 소들과 생이별을 했다.

축사 뒤편 매몰처분한 자리 보면 뭉클

외출과 외부인 접촉을 자제하며 주의를 기울였던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허탈하기도 했지만 워낙 전국의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본 탓에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매몰처분을 하고 나서도 매일 다섯 시면 눈이 떠졌어요. 수십 년 해 오던 습관인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요. 그래 축사를 돌면서 할 일이 없어 놀았지요, 그냥."

소가 없으니 허전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제역 종식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돈도 벌 겸 상하수도 녹이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지난 2월 14일, 매몰처분 석 달여 만에 구제역이 진정국면을 보이면서 가평군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가평군은 3월 15일부터 군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재입식 접수를 시작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3월 19일부터 농가에 입식되는 송아지들이 도착했다.

김씨는 소 키우는 일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재입식 절차에 따라 농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소독했다. 인근 부대 장병들도 가평군 내 농장을 돌며 소독과 청소 작업을 도왔다.

소독을 마친 뒤 군청 방역담당 직원들로부터 위생점검을 받았고,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이 직접 나와 추가로 점검을 마친 뒤에야 재입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김씨 농장은 3월 23일 한우 송아지 10마리, 24일 3마리 등 총 13마리를 들였다.

김씨는 "젖소를 들이고 싶었지만 구제역 이후에 초임 만삭 젖소

사진 송철규

송아지의 맑은 눈망울만큼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가 청명하기를. 이번 구제역 사태 이후 전국에서 처음 축산농가 재입식이 이뤄진 경기도 가평군의 신우주목장 송아지들.

의 두당 가격이 4백만원 이상으로 올라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소들을 묻고 엿새 뒤 정부에서 나온 보상금은 마리당 1백만원이었다. 정부가 책정한 보상금은 마리당 2백50만원이었지만, 김씨는 발병 신고 등이 늦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60퍼센트 감액된 1백만원씩만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젖소는 초임 만삭인 소를 기준으로 임신 횟수와 기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이번 구제역 파동을 소와 돼지 등 가축류 3백47만여 마리가 한꺼번에 살처분을 당하다 보니 돈이 있어도 젖소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젖소 송아지를 들일 수도 있지만, 2년은 키워야 착유가 가능하다.

재입식 요령 담은 CD 1만장 배포

김씨는 "이제부터"라고 다짐했다.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요. 이번에 다들 어려운 일 있었잖아요. 그래도 소 키우는 사람은 '제 업이다' 생각하고 소를 키우는 거지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조류독감(AI) 이 휩쓸고 간 축산업을 되살리고 새로운 청정축산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청정(CLEAN)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국내 축산농가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상처를 딛고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재입식 요령'을 담은 동영상 CD 1만장을 제작해 매몰 농가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했다. 이 CD는 가축을 다시 입식하기 전에 참고해야 할 내용과 절차를 시연 장면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G

글 · 남창희 객원기자

문의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 02-2080-7486 · livestock.nonghyup.com

고 김경선씨

고 원영수씨

고 심상대씨

고 김원부씨

고 권인환 일병

고맙습니다, 당신을 추모합니다

공무원 등 구제역 방역·매몰 근무하다 순직

구제역은 축산농가에만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니다. 연인원 2백만명의 공무원과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민간인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매몰 작업에 나섰다 혹독한 추위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쳐 11명의 귀한 생명이 희생됐다.

경북 안동시 전역에 구제역 비상이 걸린 지난해 11월 30일. 이날 저녁 9시부터 안동시 녹전면 사천리 구제역 이동통제초소에서 밤샘근무에 들어간 안동시청 공무원 금찬수(당시 52세)씨가 다음날 새벽 초소 근무 중 쓰러졌다.

사흘 전인 11월 28일 안동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온 뒤 구제역 방역작업에 동원됐다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교대 근무에 나섰던 터였다. 병원 이송 후 뇌출혈 판정을 받은 그는 6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12월 7일 새벽 끝내 숨졌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첫번째 순직이었다.

부상자도 중상 82명·경상 1백19명에 달해

고인은 안동시 중구동사무소에서 환경, 생태공원, 산림, 보건, 새마을자원봉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공무원이었다.

경북 영양군 입암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김경선(당시 37세)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4시경 입암면 산해리 국도변 구제역 방역 초소 인근에서 제설작업을 마치고 다른 초소로 이동하던 중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돼 순직했다.

관동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2003년 영양군에서 지방시설 서기보로 입문한 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미혼 공무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고인에 대해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영양군청은 지난 1월 31일 군청 앞마당에 고인을 기리는 추모비(오른쪽 사진)를 세웠다.

경기도 의정부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원영수(당시 50세)씨는 지난 1월 14일 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 후 쓰러져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고인은 사망하기 사흘 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낮 동안은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본래의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부터는 구제역 이동통제초소 방역근무에 동원돼 밤샘근무를 했었다.

고인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1월 의정부시에 새내기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고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헌신해 왔다. 의정부시는 그에게 특별승진 임용장을 수여하고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특별 추서했다.

전남 보성군 녹차산업과에 근무하던 심상대(당시 58세) 녹차육성계장은 지난 1월 24일 오전 보성군청에서 근무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 시간쯤 뒤 순직했다.

고인은 순직 전날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이 늦도록 동료들과 관내 오리농장에서 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동물 매몰처리 작업에 참여하고 월요일인 24일 일찍 출근하여 군수 주재 간부회의를 마친 후 사무실에서 쓰러진 것이었다.

조선DB

구제역과의 전쟁 종식에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 사진은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 경기도 파주시에서 방역작업 중인 공무원들.

지난 1979년부터 30여 년을 보성군 공직자로 재직해 온 고인은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성실과 근면함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경북 상주시 보건공무원 김원부(당시 45세)씨는 지난 1월 29일 근무 후 집에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고인은 지난 1월 15일 근무 도중 과로로 쓰러져 열흘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업무에 복귀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야간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귀가한 뒤 숨을 거둔 것이다. 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에도 밀린 잔무처리를 하고 순직 하루 전에는 동료가 근무하는 구제역 초소를 방문해 노즐 분사기를 고쳐주는 등 끝까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

고인은 1989년 상주군청 사회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농림부장관상, 경북도지사상, 상주시장상 등을 수상한 모범공무원이었다. 고인에 대해 상주시는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고인의 장례식을 상주시청장으로 엄수했다.

아까운 희생에 특별승진 추서·추모비 세워

육군 제26사단 소속인 권인환(당시 23세) 이등병은 지난 1월 9일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설치된 구제역 이동통제초소에서 방역지원 활동을 하던 중 지나가던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2010년 순천 청암대 안경광학과를 졸업하고 입대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그는 군내에서 '모범운전사'로 통할 만큼 차분한 성격에 예의 바른 모범군인이었다. 정부는 권 이병을 일병으로 추서했으며,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

이 밖에도 경남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임경택(당시 51세) 특화산업계장은 지난 1월 31일 구제역 차단을 위한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쌓여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하동군은 고인을 5급 사무관으로 추서했다. 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근무하던 김종철(당시 55세)씨는 연구소의 종축장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경북 고령군보건소의 공무원 곽석순(당시 46세·여)씨는 지난 1월 4일 방역작업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12일을 보낸 뒤 1월 16일 숨졌다. 고인은 1987년부터 24년간 보건공무원으로 일해 왔다.

경북 영천시 청소담당 공무원 김현범(당시 54세)씨도 지난 2월 12일 구제역 업무로 과로한 상태에서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시산제를 지내기 위해 산행을 하다 사망했다.

민간인인 박의순(경남 김해시)씨도 지난 3월 9일 구제역 이동통제초소 근무 중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로써 구제역으로 인한 사망자는 공무원 9명, 군인 1명, 민간인 1명 등 모두 11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82명, 경상 1백19명으로 집계됐다. 고 김경선씨의 추모비에 새긴 구절이 희생된 이들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추모합니다." G 글·박경아 기자

강현욱 새만금위원장

“올해 세계곳곳 투자유치 활동 전개”

지난 3월 16일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무려 22년간의 진통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목표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다. 강현욱 새만금위원장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거듭 다짐했다.

하재성 기자

1938년생·서울대 외교학과 졸업·1965년 제3회 행정고시 합격·1987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1991년 경제기획원 차관·92년 농림수산부 장관·1996년 제 15~16대 국회의원·2002년 제31대 전라북도 지사·2009년~현재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강현욱 새만금위원장은 새만금 사업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새만금 사업의 시작부터 연을 맺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라북도지사 시절인 2003년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키자 도민과 함께 상경해 삭발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 TF팀장을 시작으로 새만금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같이한 세월이 긴 만큼 최근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강 위원장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성공에 대한 의지도 인터뷰 내내 강하게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계획인 만큼 정부가 할 일만 제대로 해내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콘셉트를 이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경제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좋다는 이점이 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중국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새만금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상하이TV가 주말 4회에 걸쳐 새만금 특집을 방영하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새만금에 조성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참여가 기대됩니다. 지금대로라면 중국의 환경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기술자를 파견해 공동연구하거나 관련 산업 투자 등 다양한 형식의 참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강 위원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결국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

새만금은 중국에 가깝다는 지정학적 장점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등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 강조했다. 총사업비 22조2천억원의 절반가량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10조원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새만금에는 장점이 그만큼 많다는 설명이었다.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려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돼야 할 것입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새만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만금 부지의 소유주가 국가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50~1백 년의 장기임대나 저가임대 등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업 방식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이 솔깃할 조건이죠.

인프라도 세계 정상급입니다. 항만과 공항,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거미줄처럼 구축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핵으로 부상하는 중국과도 가깝지 않습니까. 인프라 조성과 홍보가 충실히 이뤄진다면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건이 우수하다고 투자자가 저절로 유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정부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합동 해외투자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에 중국 베이징, 5월에는 네덜란드와 독일, 6월에는 러시아, 9월에는 중국 상하이, 10월에는 미국, 11월에는 중국 다롄과 인도, UAE 두바이·아부다비에서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올해 내내 세계 곳곳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 대상으로는 3월에 투자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부지가 조성됐거나 수년 안에 우선적으로 조성될 부지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인데 매우 희망적입니다. 다른 개발 사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고전하기도 하지만 새만금은 다릅니다. 투자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 광범위한 배후단지, 저렴한 땅값 등 투자 유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관광업계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부지가 조성된 신시도에서 야미도 사이의 메가리조트 부지엔 이미 사업자가 정해졌습니다. 2017년까지 조성될 군장국가산업단지는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부안의 게이트웨이는 올해 사업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몇 번이나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환경 문제 때문이었다. 1999년 시화호 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만금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그 결과 민관 공동조사단이 꾸려지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2003년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공사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해 또다시 공사가 멈췄다. 환경 문제에 다시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을까.

목표 수질을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새만금은 2단계의 목표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인 새만금호의 중상류는 4등급, 관광 레저 등이 이뤄질 하류는 3등급입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계 도시의 수질은 아주 좋다고 해야 2등급이고 보통은 3등급입니다. 3등급은 도시의 수질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 유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3조원을 투자해 목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G

글·변형주 기자

위반횟수 적으면 과태료 깎아준다

하위법령 4백78건 한달 앞당겨 특별정비… 4월부터 바로 시행

올 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하위법령 특별 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당초 계획했던 시행시기를 한 달이나 앞당긴 것이다. 4월부터 당장 시행되는 하위법령 개선과제 4백78건을 들여다봤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수능시험 미응시자 응시료 반환 등의 생활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제를 지원하고 서민의 불편을 덜어 주었다.

조선DB

최근 국내에서 3백명 미만이 참석하는 중소 국제회의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하고자 정부는 국제회의시설 중 준회의시설의 등록기준이 되는 회의실 규모를 6백석 이상에서 2백석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국제회의 개최 시설 기준 완화로 중소 국제회의 시설이 크게 늘면서 국제회의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의 개최 시설 기준 완화

국제회의시설 중 준회의시설의 등록기준이 회의실 규모 6백 석 이상에서 2백 석 이상으로 완화됐다. 2009년 한국관광공사의 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3백명 미만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6백20건으로 전체 국제회의의 58.7퍼센트를 차지한다.

2008년 개최건수에 비해 76퍼센트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2009년 6백명 이상 국제회의 건수는 전체 회의 중 7.5퍼센트 미만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국제회의 개최 시설 기준 완화로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줄면서 중소 국제회의 시설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의 산업이 활성화되면 외화수입도 증대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 외국교육기관은 우리나라와 다른 학제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국에 학교를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일정한 고시 기준에 따라 본교 수준의 교사와 교원 등을 확보한 경우 국내 법령의 설립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로써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가 활성화되고 국외 유학수요도 일부 국내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3퍼센트로 인하

소상공인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적게 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소상

공인이 부담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기존 재산가액의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췄다.

국유재산 사용료 일반요율은 5퍼센트이며 경작용(1퍼센트)과 행정 목적(2.5퍼센트), 공무원 후생(4퍼센트), 주거용(2퍼센트) 등에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기존 1천만원의 재산 가치를 지닌 국유림을 활용했다면 국유재산 사용료로 연간 5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 3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재해보상 범위 확대

농산물의 재해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종전 '자연재해 중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에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로 변경하여 종합위험방식 상품으로 전환했다.

종합위험방식 상품은 겨울 동해(凍害)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전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과수 휴면기 동해는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겨울철 동해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앞으로 과태료 부담이 줄어든다. 관련 시행령 1백55건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처음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이전보다 벌금을 덜 내지만 재차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과태료 부과의 가중·감경 기준도 마련됐다. 위반의 정도가 크거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과태료가 가중되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이나 시정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깎아준다.

위반자가 중소기업인인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까지 감해 준다. 책임에 비례하는 과태료 집행으로 국민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러스트·유재민

3월 말부터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허용됐다. 이로 인해 의료·휴양·레저·문화가 결합된 복합관광서비스 단지가 개발되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고 의료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 허용

앞으로 관광단지 내에 성형외과, 치과 등 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최근 국내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외국에서 의료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단지 내에 의료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의료·휴양·레저·문화가 결합된 복합관광서비스가 개발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늘고 의료 수익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중문단지, 경주보문단지 등 지방 관광지에 의료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보면 다른 지역을 방문한 중증장애인이 해당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타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통약자가 거주지 외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되면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과 결

3월 말부터 장애인이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혼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처럼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됐다. 그러나 장애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실생활을 고려한 법으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형 공장,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더 이상 준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준산업단지는 특정지역에 입지 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의 새로운 명칭으로, 한 건물에 제조업은 물론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여러 개의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 시설을 일컫는다.

이 같은 시설들은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어서 분양에 어려움이 많았다. 투기요인이 적음에도 개인이 임대 등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축물, 상가, 아파트 등과 같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와 매매 등 토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능시험 등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능시험을 못 봤다면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응시원서 접수 등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의 이유로 수능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4개 영역 4만2천원, 5개 영역 4만7천원이다.

수능시험 지원자 가운데 미응시자는 해마다 5~6퍼센트 수준이다. 지난해는 지원자 71만2천2백27명 가운데 6.1퍼센트인 4만3천2백36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응시수수료가 반환되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연간 16억~20억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무원채용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도 적용된다. 세무사시험의 경우,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 3만원이 반환되고 1차 시험 열흘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지난해에만 세무사시험 응시지원자 중 18.5퍼센트인 1천7백78명이 미응시했다. 응시수수료 반환제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이다.

징병검사 체계 개선

징병검사 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징병검사를 겪어봤을 것이다. 모든 수검자에게 기본검사와 안과 등 9개 검사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징병검사 시, 신체 건강한 자와 건강이상자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검사시간을 줄인다. 수검자의 90퍼센트가 현역대상으로 판정되는 데 불필요한 정밀검사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서 개정된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신체 건강한 자는 기본검사 후 수석전담의사의 상세한 문진으로 간소화했다. 건강이상자는 기본검사와 함께 일부 필요한 해당 과목만 정밀 검사한다.

이로써 1인당 검사시간이 신체 건강한 자는 49분, 건강이상자는 37분 단축된다. 검사의 정확성은 높이고 시간은 단축한 것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9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한 해 34만명에 달하는 수검자들이 이 같은 편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G

글 · 이제남 기자

한상우 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 인터뷰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호 기자

한상우 법제도선진화담당관은 "하위법령 정비는 물가 상승의 걱정 없이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에는 법제처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다. 법제처는 지난 1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하고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 3개월간 주말까지 반납하고 실무에서 힘써 온 한상우 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을 만나봤다.

"이번 하위법령 정비는 앞으로 이렇게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된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과제를 보면 대부분이 국민과 기업을 위한 법령입니다. 각 분야별로 당장 4백78건의 법령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올 초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 4백86건을 선정해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당초 시행시기를 4월 말로 예상했지만 신속한 정비로 4월 초부터 4백78건이 즉시 시행된다.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해 제도 개선 지속

한 담당관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등 국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몇 가지 사안 외에 98퍼센트가 한 달 앞당겨 완료된 것"이라며 "나머지도 4월 중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른 데에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편의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다.

"경제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제도개선입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많이 투자하면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 정비는 물가 걱정 없이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안입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중점을 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는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4월 초부터 시행되는 학원 내 환기시설 설치 규정은 지난해 초등학생 6학년 어린이가 제안한 의견입니다.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는 황병휘 어린이가 '학원 공기가 너무 나쁘니 규제해 달라'고 실생활 속 불편을 제기해 이번에 개선하게 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학원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도 실내 공기가 매우 나쁜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이번에 실내 영화상영관, 대규모 학원, PC방 등이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됐다.

"법률 개정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권한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하위법령입니다. 과거 법령 개정을 발표한 뒤 시행하는 데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렸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바로 개정하자는 생각으로 신속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법제화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G

글·이제남 기자

기 획 특 집

일본 원전 방사능 안전을 점검한다

환경 위기와 자원 위기를 맞은 세계는 지구를 지키는 청정에너지로,
고유가에서 해방되는 대안으로 원자력 사용을 모색해 왔다.
농업 공업 의학에까지 두루 사용되는 원자력의 파괴성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안이 원자력의 이용과 관리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안전규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원자력 안전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로운 얼굴을 지키기 위한 안전규제는 물 샐 틈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러스트 · 유현호

"위험상황 아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하늘·땅·바다 24시간 방사능 감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안전은 물론 북한 핵실험, 방사능 테러까지 감시하고 대응하는 곳이다. 일본지진 발생 직후 이곳에 '일본지진 관련 원전안전위기상황반'이 개설돼 24시간 감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찾은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2층 상황실. 2층 높이의 천장에서 빛나는 원자 운동 모양의 대형 등이 이곳이 원자력과 관계있는 공간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2층 높이의 벽면을 반쯤 채운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KINS의 운영프로그램인 '사이렌(SIREN)'을 통해 일본 지도, 일본 기상상황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다. 이날은 마침 '일본지진 관련 원전안전위기상황반'이 개설된 지 20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일본지진 상황반은 일본지진이 발생한 3월 11일 오후 개설돼 26명의 직원이 24시간 근무하며 매일 방사능 관련 상황 감시를 하고 있다.

"지진과 지진해일, 후쿠오카 원전 사고가 이어진 일본 재난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일본 재난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유례가 없는

조선DB

방사능방호기술본부 상황실 내부 모습. 벽면의 대형 모니터 화면에 일본 지도와 일본 기상 상황이 보인다. 사진 오른쪽 위는 방문객들을 위한 견학 공간.

재난이죠."

일본지진 상황반을 이끌고 있는 KINS 김석철 방사선 비상보안 대책실장은 "정부 대응이 늦다는 일부 여론도 있으나 실제로는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본 원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매뉴얼에도 없는 일본지진 상황반을 개설한 것은 선제대응의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엄밀히 말해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방사능 이상이 생기면 '백색–청색–적색'으로 3단계 경보가 발령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이러한 비상상황은 아니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심리 때문에 일본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이곳에는 하루 수백 통씩 문의전화가 쏟아졌다고 한다.

"어느 날 일본 도쿄에서 귀국하는 여성이 전화를 해 혹시 자신이 방사능에 오염돼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설치한 것이 공항의 방사능 오염 탐지기입니다."

김 실장은 "실제 위험과 공포감은 분명 다른 것인데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포감이 위험으로 인식되는 혼돈을 빚고 있다. 전문가의 말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황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루머 대응'이라고 전했다.

"대기 중에 방사성물질이 극미량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분은 자연상태에서도 검출되고요.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안전한가'인데, 안전한 범위 안에 극미량 있는 것마저도 문제 있다고 몰아 가는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방사성물질 '존재' 타령에 '안전'은 추임새 신세

KINS는 원자력 시설의 설계와 건설, 운영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KINS 내에서도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는 방사능작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방사선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전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곳. 이곳 상황실 입구에 있는 KINS 마크 안에 새겨진 'panopticon(파놉티콘)'이란 표현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역할을 한 단어로 대변하고 있다.

파놉티콘이란 'pan(모두)'과 'opticon(본다)'의 합성어.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이 설계한 '모든 죄수를 한 눈에 감시하는 원형감옥'을 뜻한다.

KINS는 전국 70곳에 방사선 준위 측정장치를 두고 원전 사고나 북한 핵실험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기구다. 최근에는 방사능 태러 대비도 주요 업무의 하나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에는 국제회의나 방사능 사고 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비상대비 차량이 구비돼 있다.

조선DB

한반도의 방사능에 관한 모든 것을 감시하는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방사능방호기술본부에 차려진 '일본지진 관련 원전안전위기상황반'.

21개 원전 안팎 감시 '아톰케어' 시스템 운영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를 말하자면 무엇보다 '아톰케어(Atom care)'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다. 아톰케어란 전국의 21개 원전에서 전달하는 방사선 측정치와 원전 내 온도,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풍향 풍속 등의 신호들을 받아 15초마다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다.

"아톰케어는 세계 최고의 원전안전 감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의 발달된 정보기술(IT)과 원전의 안전요소들을 감시기관인 KINS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뒷받침 덕분에 구축된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의 경우 원전의 안전요소들은 영업비밀이어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톰케어로 관리되는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 원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아톰케어는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아 외국 원전 관계자들의 KINS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4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일본 원전 상황이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일 비상근무에 녹초가 된 상황반원들의 사기는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사명감 하나로 이곳에서 열정을 바치고 있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8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에서 안전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정보 신속 공개로 국민 불안 없앤다

오염 가능성 거의 없는 플루토늄도 공포감 해소 위해 조사키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방사능 유입 정도가 심각하거나 방사능 위기에 놓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국민의 불안심리를 덜어 주기 위해 감시와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월 1일 무인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설치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했다. 이주호 장관은 "우리 땅 독도에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내에서도 극미량이지만 방사성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방사능 수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 측정소의 대기부유진 방사능 측정결과를 매일 발표하고 있으며, 지역별 방사능 수치는 주요 포털사이트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독도에 설치되는 감시기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70개의 환경방사선 감시기와 같은 기기로, 하루 정도의 시스템 검사를 거쳐 4월

조선DB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동해안을 비롯한 우리나라 해안의 해수와 해양생물, 토양과 전국의 22개 정수장의 수돗물에 대한 방사성물질을 분석(주 1회)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사성물질 중 하나인 플루토늄(Pu)이 방사능 분석 대상에 포함되고 수돗물에 대한 방사능 분석도 강화된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3월 31일 기자브리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시료에 대한 감시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플루토늄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지금은 플루토늄 조사를 할 단계도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께서 이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 다른 핵종에 비해 특별한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플루토늄에 대한 방사능 분석은 연안 20곳의 바닷물과 전국 12곳의 토양에 대해 실시된다.

연안 20곳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수 및 해양생물 방사선 분석의 채취 지점과 같고, 검사대상 토양은 현재 공기 중 방사선 분석을 수행하는 전국 12곳 측정소 부근에서 얻는다.

연안 20곳 바닷물 · 전국 12곳 토양 플루토늄 분석

플루토늄은 천연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알파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플루토늄은 매우 무겁고 기화(氣化)도 어려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국 22개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까지 검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베타선 방출 방사성물질만이 검사대상이었다.

특히 이 수돗물 방사선 검사는 정밀분석 방법이 아닌 신속분석 방법으로 실시된다. '신속분석'이란 핵종별로 극소량을 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목표치를 미리 설정하고 목표치가 넘는 방사능 농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원장은 "측정목표치를 핵종별로 섭취제한 기준의 1백분의 1로 설정하고 신속분석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2개 지방 측정소의 지역별 방사능 수치는 주요 포털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와 해양생물, 토양과 전국의 22개 정수장의 수돗물에 대한 방사성물질을 분석해 주 1회 발표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난 3월 11일 직후부터 극미량의 방사능을 핵종별로 검출하는 '정밀분석' 방식으로 방사능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주기는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실시하는 대기부유진 관측은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시켰고, 3월 28일부터는 매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일 발표한 '대기 중 방사능 분석' 결과 일부 방사성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검출되고 있으나 극미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분석 결과 검출되는 방사성물질은 극미량

방사성세슘(Cs-137, Cs-134)은 발표 첫날 춘천지역에서만 극미량(Cs-137 0.018mBq/㎥, Cs-134 0.015mBq/㎥) 검출됐을 뿐 29일 이후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3월 23일부터 강원도 지역에서 검출돼 온 방사성제논(Xe-133)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3월 30일 0.714밀리베크렐/세제곱미터로 고점을 찍었으나 3월 31일 0.504밀리베크렐/세제곱미터로 감소했다.

방사성제논 농도 0.714밀리베크렐/세제곱미터는 연간피폭선량으로 환산하면 0.0000463밀리시버트(mSv) 수준이다. 이는 X-ray 1회 촬영 시 받는 선량(약 0.1mSv)의 약 2천분의 1 정도이며, 일반인의 연간선량한도(1mSv)의 약 2만분의 1 수준으로 극미량이다.

방사성요오드의 경우 대기 중 방사능 분석결과 발표 첫날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미량 검출됐다가 4월 1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청주 등 5개 지역에서 극미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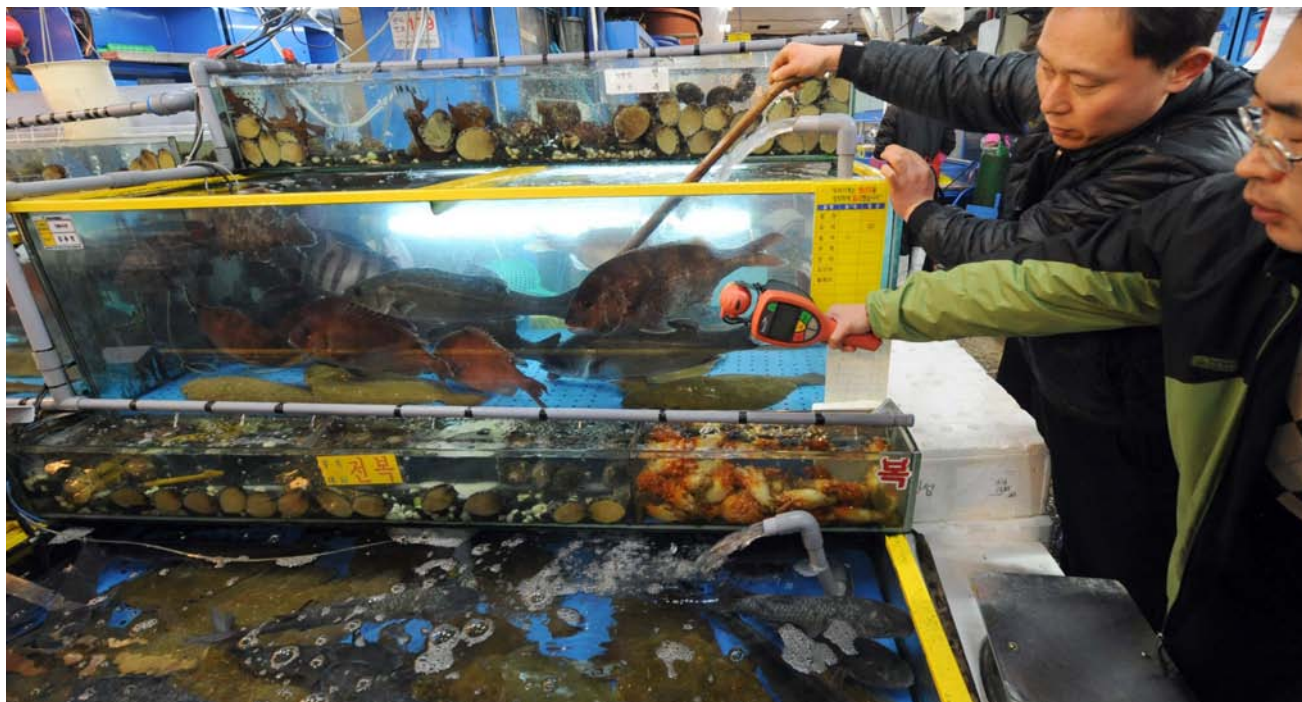
강릉의 경우 발표 첫날부터 연속 4일째 방사성요오드가 검출됐으나 4월 1일 방사성요오드 검출 5개 지역 중 가장 높았던 강릉의 수치 0.588밀리베크렐/세제곱미터는 연간피폭선량으로 환산하면 0.0000567밀리시버트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X-ray 1회 촬영 시 받는 선량(약 0.1mSv)의 약 1천8백분의 1 정도이며, 일반인의 연간선량한도(1mSv)의 약 1만8천분의 1 수준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www.kins.re.kr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국민 안심하게 日 축·수산물 검사 철저

농식품부, 요오드·세슘 검사결과 매일 공개… 수돗물 긴급검사 '안전' 확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시설 파손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고, 지난 3월 29일 국내 12개 지역의 대기에서도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수입되는 먹을거리와 우리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수입 검역과 수돗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조선DB

지난 3월 29일 국내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가 검출되자 서울시 농수산식품안전팀 직원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분유, 치즈 등을 매번 검역하는데 아직까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고기류는 이미 모두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출하정지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했다. 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3월 28일 소비자단체, 방사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방사능 오염 사고에 대비한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실,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등 기관별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일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건별 정밀검사 실시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충분히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산 축·수산물 정밀검사 등 모니터링 강화

일본산 축·수산물의 수입내역 및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와 검사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일

공개한다. 검사항목은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세슘 등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축산물은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방사선량률이 주의 준위 이상인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은 방사성 물질 확산추이에 따라 국내산에 대해서도 방사능 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방사능이 해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해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주도 해역 바닷물을 채취해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한 오염 검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방사선량이 증가할 경우 오염 우려 지역으로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역별 검출된 방사성 물질 단위 mBq/㎥ · 방사성 요오드131 기준 · 4월 1일

다목적댐 15곳 · 광역정수장 35곳도 방사능 분석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제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총 9백86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백44건 모두 적합했고, 7백42건은 검사 중이다. 농·임산물은 1건, 가공식품 6백32건, 건강기능식품 26건, 식품첨가물 3백27건이 수입됐다.

품목별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농·임산물 1건, 가공식품 1백36건, 건강기능식품 6건, 식품첨가물 1백1건을 검사한 결과 2백44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14건의 시료에서는 불검출 수준의 극히 미미한 양(0.08~0.6Bq/kg)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방사능 기준은 세슘 3백70베크렐/킬로그램, 요오드 3백베크렐/킬로그램이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물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식약청은 종전에 통상 9시간 소요되던 현행 검사법(1일 2건 처리)에 신속 검사법을 도입하고 검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검사역량을 1일 10~15건으로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4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4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6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4대) 등 유관기관의 검사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도 아직까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의 수계별 대표 광역상수원 4개소와 대표 정수장 4개소에 대해 세슘과 요오드 긴급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상수원과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팔당·대청·주암·남강댐, 성남·청주·화순·사천정수장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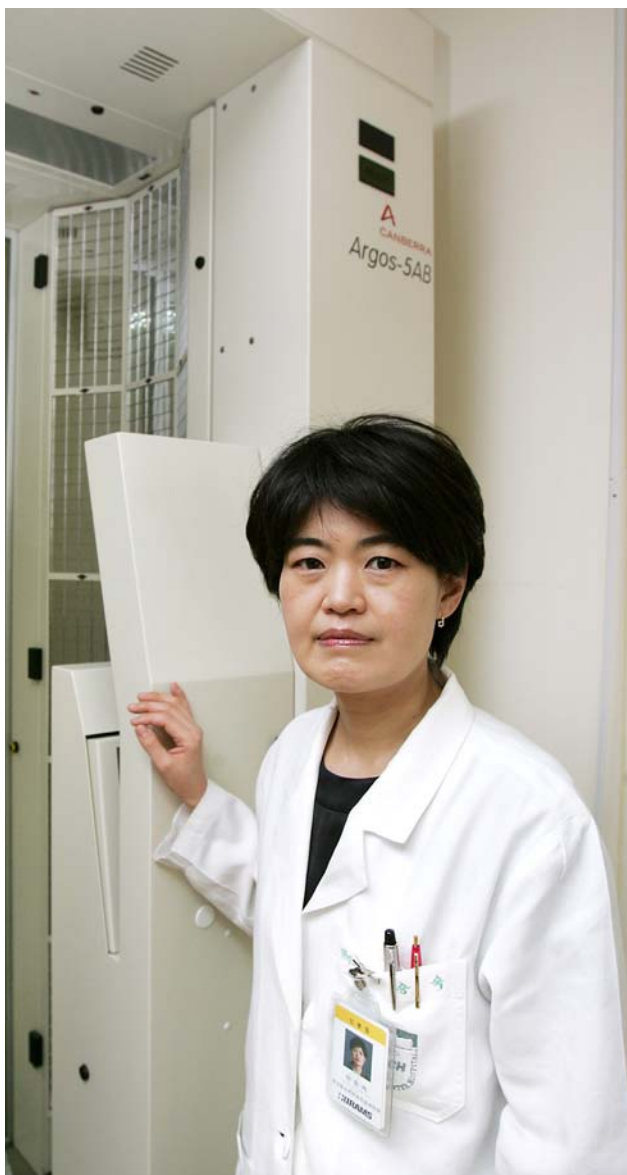
백경희 수질분석연구센터장은 "이번 분석은 한국기초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며 "향후 한국수자원공사 수질분석연구센터에 세슘과 요오드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먹는 물 안전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상수도연구원 한선희 수질연구부장은 "분기별 1회 검사하던 것을 주 1회로 강화했다"면서 "2002년 검사 시작부터 지난주까지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은 단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

글 · 서일호 기자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진료센터장

"요오드·세슘 극미량은 아무 탈 없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에 따른 '방사성물질 국내 검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때다.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에게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과 해당 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다.

정복남 기자

이승숙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국내 방사성물질 영향에 대해 "극미량이라 안심해도 된다"며 지나친 불안감이 조성되는 분위기에 대해 경계했다.

'국내 검출량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발표를 믿어도 되는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대기중에서 검출된 방사성요오드(I-131)는 최소 0.049밀리베크렐/입방미터(mBq/m³)에서 최대 0.35밀리베크렐/입방미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폭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일반인에게 연간 허용되는 방사선량 한도인 1밀리시버트(mSv)의 약 2십만분의 1에서 3만분의 1 수준이다.

춘천측정소에서 검출된 세슘(Cs-137, Cs-134)도 일반인의 연간 허용되는 방사선량 한도의 8만분의 1에 불과한 값이다. 방사성제논(133Xe)도 검출됐으나, 제논은 불활성 기체로서 흡입돼도 인체에서 반응하지 않고 호흡으로 다시 배출되므로 그 자체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플루토늄(Pu-239, 238)은 다량 체내 유입될 경우 뼈 표면에 침착돼 영향을 미치거나 골격, 간, 폐 등에 손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질량이 큰 핵종으로서 인체 내부 오염의 가능성이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왜 방사성요오드와 세슘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요오드, 세슘, 플루토늄, 제논 등은 핵분열이 일어날 때 나오는 물질로 과하면 인체에 해가 되지만 양을 조절하면 오히려 질병의 진단,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방사성요오드(I-131)와 세슘(Cs-137)이 특히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은 '양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방사성동위원소'이기 때문이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일단 기준치(1인 연간 허용되는 방사선량 한도인 1밀리시버트)보다 높은 양의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겠다.

방사성요오드는 대부분 호흡에 의해 인체 내부에 유입, 갑상선에 모이게 된다. 갑상선에 모인 방사성요오드는 감마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게 된다. 이러한 방사선에 의해 인체 내 장기가 피폭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본 방사능 누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공기 오염 정

도는 갑상선 방호제를 사용하는 기준인 1백밀리시버트의 약 2천분의 1 수준에 해당하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세슘은 호흡기나 오염식품 섭취를 통해 유입 후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며, 근육 등에 축적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슘의 물질 자체의 반감기는 30년으로 반감기가 8일인 요오드에 비해 인체에 오래 남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성물질이지만, 인체에서는 정상적인 대사과정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몸에 남아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생물학적 반감기는 1백~1백10일 정도이다. 그러나, 이 두 물질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10~20여 년 후 이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 발병으로 직접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방사성물질 국내 검출량으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요오드나 세슘 등을 제거할 수 있는 평상시 예방법 같은 게 있나?

"영향이 없는 극소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음식물의 경우 현재로선 국내 오염으로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수입 식품의 경우 오염된 식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식약청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비로 인해 채소 등 오염은 어떤가?

"방사성물질이 극미량이라 의미 있게 생각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방호제인 '안정화요오드' 등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1백밀리시버트 이상으로 오염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정화요오드를 복용하지 않는다. 복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 당국의 지침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10일 이내 총 1그램을 넘지 않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 과다 사용할 경우 피부발진, 침샘부종이나 염증, 요오드 중독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오드 중독의 증상은 금속성 미각, 타는 듯한 입·인후·치아 통증과 잇몸 출혈, 감기 증상, 위장장애·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권고치(갑상선피폭선량 최소 1백밀리시버트 이상 시 복용)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필요치 않은 경우 막연한 불안감에 미리 사용하면, 정작 필요한 때에 과다용량의 우려로 사용치 못하게 될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당국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50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 오염 시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1백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 오염에 노출될 일은 거의 없다. 갑상선 방호제 등은 오염이 확실한 지역에 인명구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되는 소방요원이나 의료진, 원자력 관련 기술자 등이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조선DB

일본 원전사태로 국내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수질분석과 연구원들이 각 취수장에서 채수한 물을 분석하고 있다.

방사능 관련 용어 설명

방사능, 방사선, 방사성물질 방사선(放射線)은 X선, 감마선 등 전자기파와 알파선·베타선 등 입자선을 말한다. 방사능(放射能)은 이런 방사선을 내는 능력을 말한다. 방사성(放射性)은 '방사능의 성질을 가진'이라는 의미다.

요오드(I-131) 핵먼지, 방사성물질. 호흡에 의해 체내 유입됐을 경우 갑상선에 침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감마선과 베타선을 방출한다. 방사능의 능력이 반으로 감소하는 반감기는 8일이다.

세슘(Cs-137) 핵먼지, 방사성물질. 감마선과 베타선을 모두 방출하는 방사성핵종이다. 호흡 또는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인체 내에 유입 후 장에서 흡수돼 근육에 침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슘 자체의 반감기는 30.2년이지만, 인체대사에 의해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인체에서의 방사능이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백~1백10일이다.

요오드칼륨(KI) 요오드(I-131) 1백밀리시버트 이상의 오염이 있는 경우, 미리 사용하는 방호제의 개념이다.

방사성물질 오염 인체에 접촉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므로 신속한 제염이 요구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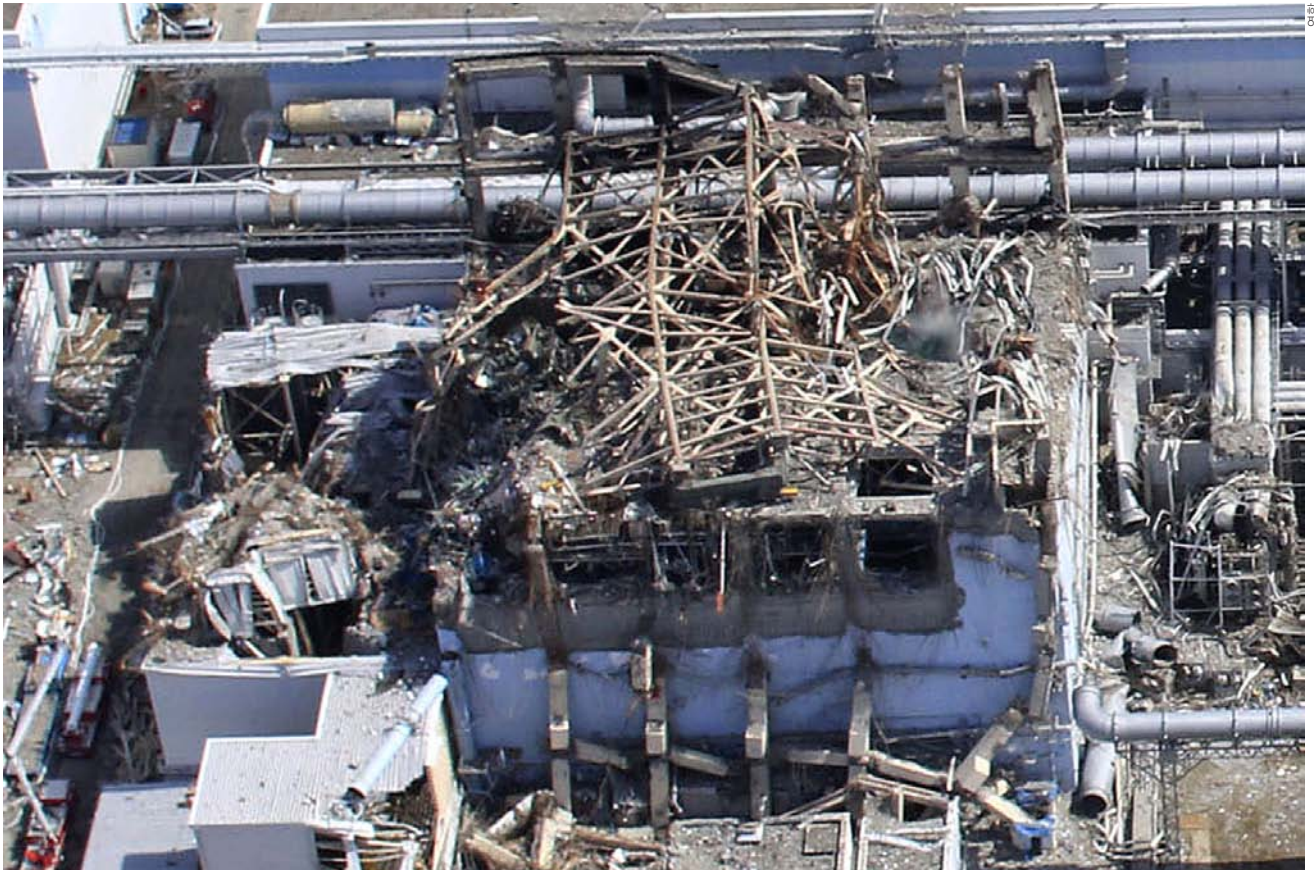
방사선 피폭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이 인체를 통과하여 에너지를 전달받지만 인체 내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염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다.

방사성 물질 유입에 대한 또 다른 피해는 없나?

"적어도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방사능의 인체 피해 가능성은 없다. 과거 체르노빌 원전사고(원전사고등급 7단계)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가장 큰 방사성물질은 요오드와 세슘이었다.

현재 편서풍인 상황에서 대기중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면서 옅은 농도로 희석이 된다. 일본 원전사태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바람이 직선 형태의 동풍으로 불어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게 되는 피폭방사선량은 일반인 연간선량한도 1밀리시버트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G

글·박근희 기자

연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상공에서 촬영한 원자로 3호기의 모습. 폭발로 지붕이 날아가는 등 심각하게 파손된 3호기에서는 방사성 물질 누출이 계속되고 있다.

日 안전불감증 · 뒷북 대응에 '공포 도미노'

이번 원전사태로 일본은 '원자력 안전 강국'에서 '2000년 이후 최대 원전 사고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전문가들은 도쿄전력과 원자력안전보안원 등 일본 원전 당국의 안일함과 늦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이 시간당 5백밀리시버트(mSv)로 원전 폭발 이후 최고치에 이르렀다."

지난 3월 23일 도쿄전력은 긴급 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원전사태 초기인 3월 15일에 측정된 것이었다.

다음 날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은 원전이 정상 가동될 때보다 1만 배 많은 방사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일본 국민은 늦장 발표에 화낼 겨를도 없이 방사선 공포에 휩싸였다. 실제 일본 정부는 원자로에서 노심용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줄곧 이야기하다가 3월 28일에서야 원전 1호기에서 노심용해가 일어났음을 인정했다. 노심용해는 원전에 있는 원자로의 핵연료봉이 녹아 안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현상이다.

노심용융물이 원자로를 녹이고 격납용기 바닥으로 흘러나온다면 최악의 경우 증기폭발과 함께 대규모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다.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제무성 교수는 "증기폭발이 일어나면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 너머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며 "원전사태 초기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11일 원자력안전보안원은 대지진으로 원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겨 응급조치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조치는 당초 보고한 시각보다 5시간여 늦게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3월 11일 이후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핵분열할 때 나오는 중성자가 2차례 검출됐다고 했다가 13차례로 말을 바꿨다. 정부는 관측 장비를 잘못 읽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가 사태 초기부터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즉각 대응했더라면 피해는 지금보다 덜했을 것"이라며 "이번 원전사태는 대지진과 지진해일 등 '천재(天災)'에 '인재(人災)'까지 겹쳐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플루토늄 검출 관련 말 바꿔 불신 자초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일본의 원전 제도이다. 미국은 1974년 원자력위원회에서 안전 규제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 직속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설립했다.

프랑스는 2006년 안전업무만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청(ASN)을 만들었고 캐나다는 2000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현재 보건안전집행부(HS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독립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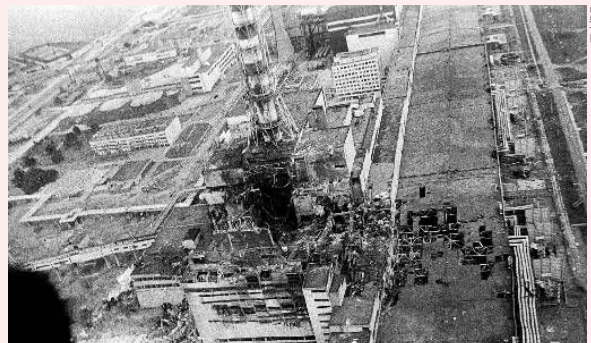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다.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경제산업성과 보안원의 지시를 받는다. 이렇다 보니 원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안전불감증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도쿄전력 연구진은 2007년 '앞으로 50년 안에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10퍼센트 정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안일함은 정기점검 부실로도 이어졌다.

AP통신은 3월 21일 올해 2월 원자력안전보안원이 도쿄전력에서 받아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장비 33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1호기와 2호기 원자로의 펌프, 3호기의 비상 디젤 발전기, 4호기의 발전 장비 등을 정기점검하지 않았다. 원자로에 냉각수와 전기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가 대지진이 있기 전부터 소홀히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원자력행정에 정통한 김영평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원전의 경쟁력은 안전"이라며 "일본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 7월 출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된 기구가 돼야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G

글 · 변태섭 (동아사이언스 기자)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 직후 모습.

미 스리마일섬 ·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와 처리 과정 운전원 실수가 화근… 영구 폐쇄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스리마일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가 있기 전까지 대형 원전 사고를 가리키는 말처럼 여겨졌다. 1979년 3월 28일 새벽 4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스라마일섬의 원전 2호기의 냉각장치가 고장 났다. 원전의 내부 압력이 높아지자 압력을 낮추는 밸브가 열렸다. 압력을 일정 수준까지 낮춘 후 닫혀야 할 밸브는 계속 열린 채로 있었다. 운전원이 압력 계기판을 잘못 읽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린 밸브를 통해 냉각수가 계속 유출됐다. 원자로의 노심이 열을 이기지 못하고 녹아내렸고, 여기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

냉각수가 공급되면서 원자로는 곧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용융상태의 핵연료를 처리하는 등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데 무려 10억 달러(약 1조원)가 들었다. 사고가 난 2호기는 14년간 이런 작업을 거쳐 1993년에서야 영구 폐쇄됐다.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는 1986년 구(舊)소련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꼽힌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7단계로 5급인 스리마일 원전 사고보다 2등급 더 높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비상시 공급되는 전력의 안전성을 검증하던 운전원이 실수로 자동정지 기능을 차단한 게 원인이 됐다. 이로 인해 발전기의 출력이 갑자기 올라 원자로가 폭발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3백50배 강한 폭발이었다. 특히 체르노빌은 원자로에서 핵분열 속도를 낮추는 감속재로 불에 잘 타는 흑연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당시 구(舊)소련 정부는 원전에서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막을 방법이 없자 철강 7천톤과 시멘트 41만입방미터를 부어 원전을 묻었다. 사고 이후 체르노빌 원전 반경 30마일(약 48킬로미터) 지역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유엔이 2005년 발표한 〈체르노빌의 유산–사고 20년 후 피해규모의 진상〉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56명이었다. 유엔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방사선을 쬔 4천여 명이 암과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약 20만명이 여러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방사능 비' 국내선 아직 걱정 단계 아니다"

비상사태 땐 요오드화칼륨·프루시안블루 등 의약품 무상 배포

봄비가 두렵다. 혹시 모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장을 보러 가도 일본산 식품은 피하게 된다.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 넘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며 국내산 채소, 수산물 등까지 의심스럽다.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요즘, 방사능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일러스트·이우정

지난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총 9백86건의 일본산 식품이 수입됐는데, 이 중 2백44건은 문제가 없었다. 나머지 7백42품목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올리기로 했다. 당장 현실에 부닥친 먹을거리 문제부터 궁금증을 풀어 본다.

일본산 식품 중 일부 품목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괜찮나.

문제 없다. 검사 결과, 2백44건 중 14건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0.08~0.6베크렐/킬로그램으로 극히 미량 검출됐다. 미국의 경우 세슘은 5베크렐/킬로그램, 요오드 3베크렐/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인체에 무해한 불검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식품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나.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은 멜론, 호박, 커피, 로즈마리, 산초, 바나나잎, 파, 바닐라, 후추, 고추냉이 등이다.

가공식품은 청주, 과자, 소스류, 캔디류, 기타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볶은커피, 수산물가공품, 국수, 초콜릿가공품 등이다.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식약청은 모든 일본산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밀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방사능의 강도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경우 시료 분쇄과정부터 1건당 총 8~9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요오드나 세슘의 오염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시료분쇄 과정부터 약 1~2시간이면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될 때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잠정 보류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검사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현재 식품 중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항목은 세슘과 요오드

두 가지 항목이다.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치는 요오드 1백50베크렐/킬로그램, 세슘 3백70베크렐/킬로그램을 넘으면 안 되며, 기타 식품의 기준치는 요오드 3백베크렐/킬로그램, 세슘 3백70베크렐/킬로그램이다. 검사는 수입시마다 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식품 오염경로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각종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면, 공기 또는 비에 섞여 토양이나 해양을 오염시킨다. 오염된 토양과 해양에서 자란 농·수산물에 흡수·축적된 방사성 물질이 결국 인체에 흡수되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과량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구토, 탈모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이나 급성방사선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3월 21일 이후 방사능 오염 관련 해당 지역의 출하를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철저한 식품 검사를 통해 오염된 식품의 유통을 막고 있으므로 이런 증세가 나타날 염려는 전혀 없다. 급성방사선증후군도 전신이 1시버트 이상의 용량에 노출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식품 섭취로는 불가능하다.

1시버트는 자연적으로 1년간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약 3백 배 수준으로 골수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소화기계, 심혈관계 등의 다른 장기는 더 높은 용량(10시버트 이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최근 대기 중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데 안전한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국 환경방사선측정소에서 자동으로 방사선량을 측정해 5분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서울, 춘천, 강릉에서 극히 적은 양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지만 세슘은 추가로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평상 수준으로 일생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도 인체에 무해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예측했다.

일명 '방사능 비'는 얼마나 위험한가.

국내 실시간 방사선량률은 안전한 범위에 있다. 대기 중에 검출된 요오드와 세슘도 아주 적은 양이어서 현재 비에 섞여 내리는 방사성 물질로는 인체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나 이왕이면 직접 비를 맞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출 시 방사능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전하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사고 시를 대비해 배포되는 방독면도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걸러 주지는 못한다. 다만 피부노출을 막아 주는 정도의 기능을 할 뿐이다. 일반 마스크나 최근 불티나게 팔리는 방사능 전용 마스크도 마찬가지다.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을 걸러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방사능 비상사태 땐 이렇게 하세요

① **방사능 낙진 시 기본 행동요령**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등 외부 노출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생활하고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한다. 외출 시에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한다.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밖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야채, 과일 등의 채소류는 잘 씻어서 먹는다. 가축도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 둔다.

② **비상사태로 인한 옥내대피 시 행동요령** 방사성 물질은 맛, 소리, 냄새 등 형상이 없어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다. 라디오, TV, 민방위 조직 등을 통한 정부지시대로 행동한다.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 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한다.

만약 옥내대피 경보가 내려졌다면 전기 및 가스를 끄고 수도꼭지를 잠근 후 담요, 의복, 구급약품 및 유아용품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피소로 피한다. 음식물을 지참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애완동물은 동반 금지다.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하도록 한다.

상황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오염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 외 접근이 금지된다.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미 방사능에 피폭됐을 경우** 방사능 피폭이 의심되면 의복 등 오염된 물체들을 서둘러 제거하고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깨끗이 씻는 것이 필요하다. 방사능에 오염됐을 수 있는 농작물과 낙농제품 섭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사선 피폭 시 복용하는 의약품은 무엇이며,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방사선 피폭 의약품으로는 요오드화칼륨과 프루시안블루가 있다.

요오드화칼륨정(KI)은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 주고 프루시안블루 캡슐(5백밀리그램)은 위장에서 세슘을 포획해 대변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요오드화칼륨정 등을 구입할 수 있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비하여 요오드화칼륨정과 프루시안블루 캡슐을 구호용으로 비치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방사선이 검출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의약품 대신 미역 등 해조류로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지.

미역 등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의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체내 흡착을 막아 주지는 못한다. G

정리·이제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www.kins.re.kr

김용우 기자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지난 3월 31일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수명연장 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1호기의 주제어실(MCR)과 비상발전기, 냉각수 취수구와 7.5미터 방벽 등 주요설비를 언론에 공개했다.

"자연방사선의 1천분의 1 수준 검출" "지진해일 인한 원전사고 철저 대비"

지난 3월 29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주제로 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강신헌 한국수력원자력 안전기술처장,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중앙일보〉 박방주 과학전문 기자·강찬수 환경전문 기자·박경덕·김한별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일본 원전 관련 핵연료봉 뚫렸다면 다양한 핵종 나올 가능성

박경덕 일본 원전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앞으로 더 많은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 상태는 어떤가.

이은철 처음에는 전력만 복구하면 바로 냉각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지난 주말까지 답보 상태였다. 거기다 오늘 플루토늄까지 나왔다고 하는 걸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방사성물질들이 기체·액체·고체 상태로 다 나오고 있다.

박방주 원자로 격납용기가 깨진 건가.

이은철 격납용기 아래쪽이 깨져 (녹아내린 연료봉이) 바닥으로 스며들면서 방사성물질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얼마나 크게 뚫렸는지는 모른다. 원자로에서 4백50미터쯤 떨어진 데서 플루토늄이 발견됐다고 하니 방사성물질 농도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기 플루토늄은 특별히 분석해서 미량만 있어도 잡아낸다. 따라서 플루토늄이 나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핵연료봉이 손상되었다면 다양한 핵종이 나올 수 있다.

박경덕 어떻게 하면 사안이 마무리될까.

이은철 냉각장치만 가동되면 방사능 수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용기 바닥이 뚫렸다는 것은 문제다.

바닥 아래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얼마나 뚫렸는지 조사가 되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중앙DB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강신헌 한국수력원자력 안전기술처장,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중앙일보〉 김한별·박경덕·박방주·강찬수 기자.

박경덕 현재 한국에서 검출되는 방사선량은 어느 정도인가.

이은철 오해가 많은 것 같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지만,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도 연간 2.5밀리시버트(mSv) 정도 방사선을 맞고 있다. 여기에 1밀리시버트(일반인 유효선량)를 더 맞아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검출된 양은 그보다 훨씬 적은 나노시버트(nSv) 단위다. 자연 방사선 피폭량의 1천분의 1, 1만분의 1 수준이다. 아무 문제가 안된다.

일본 식품 기피현상도 일어나고 생태 수입이 중단됐지만 규제 섭취 제한량이 다 나와 있다. 외국 식품 수입을 금지할 때는 방사능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막는다. 혹시 밀매를 해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염 정도가 굉장히 낮다.

방사선 안전 관련 동풍 불어도 우린 비 맞거나 야채 등 걱정없어

강찬수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비를 맞아도 괜찮은가.

이재기 편서풍이 아니라 동풍이 불어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더구나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면서 옅은 농도로 희석돼 1세제곱미터당 몇 마이크로시버트(μSv, 1μSv는 1천분의 1mSv) 수준으로 희석된다. 비를 맞거나 야채를 먹는 것 모두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강찬수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방사성물질 검출 농도가 올라가면 국가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격리 치료나 치료제 공급 등 준비는 돼 있나.

이승숙 우리나라는 방사선 긴급 의료 처치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현재 우리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5등급 수준의 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치료제와 의료요원 등을 갖추고 있다.

올 1월 일본에서 우리의 의료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왔을 정도다. 체르노빌과 같은 7등급 사고는 어느 한 국가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런 가정하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한별 식품도 우려된다. 일본 식품 기피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해산물을 먹어도 되나.

이승숙 현재 생태 수입이 중단됐지만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수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규제 섭취 제한량이 다 나와 있다.

외국 식품 수입을 금지할 때는 (방사능)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들여오지 않으면 된다. 혹시 밀매를 해서 먹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염 정도가 굉장히 낮다.

김한별 중국에서 방사성물질이 바람을 타고 오는 상황에 대한 대비는 돼 있나.

이승숙 현재로서는 그런 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건을 겪고도 계속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 특히 중국에 관한 계획은 세워야 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책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한국 원전 관련
전기 없이 수소 흡수해 폭발막는 장치 완비 예정

박방주 한국 원전의 지진해일 대책은.

강신헌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볼 때 동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진해일은 3미터 정도다. 한국 원전은 이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고리 원전 부지는 해수면으로부터 9.5미터, 나머지는 10미터 높이에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설계 기준을 넘어선 지진해일에서 비롯됐다. 그런 수준의 지진해일이라면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 중인데 그 결과를 반영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고칠 것은 확실하게 고치겠다.

박방주 현재 검토 중인 안전 개선 방안은.

강신헌 전기가 없어도 수소를 흡수해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모든 원전에 공급하려고 한다. 현재 그런 장치는 고리 1호기와 신고리 1호기에만 있고, 나머지는 전기를 필요로 한다.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디젤발전기 침수에 대비해 방수시설을 확대하고 발전기 위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방주 현재 디젤발전기는 몇 층에 있나.

강신헌 1층 바닥에 있다. 큰 지진해일이 왔을 때는 침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방주 후쿠시마 원전은 모든 전기가 끊어져 냉각수 순환이 중단돼 문제가 됐다. 우리 원자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나.

이은철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수증기로 증발한 물을 계속 보충해줘야 하는 구조다.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냉각수 공급이 중단돼 사고가 났다. 우리 원전은 전기가 안 들어와도 물이 자연 순환되는 구조다. 냉각 효율은 떨어져도 비상시 오래 버틸 수 있다.

강신헌 전기가 끊어지는 비상시 냉각수 공급 터빈을 전기가 아니라 증기를 이용해 돌리는 장치도 있다. 또 발전소 내 3곳에 7백 톤 이상의 냉각수가 항상 준비돼 있다. 냉각수가 떨어져서 발전소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조선DB

지난 3월 28일 국내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서울지방방사능 측정소에서 연구원이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박방주 내진설계는 어떻게 돼 있나.

강신헌 신고리 3, 4호기는 규모 7.0, 나머지는 규모 6.5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 그것도 발전소 바로 밑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를 가정했다. 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난 더 큰 지진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처럼 규모 9.0의 지진이 왔을 때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봐야 한다.

우리 원전의 내진설계는 발전소 바로 밑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를 가정해서 신고리 3, 4호기는 규모 7.0, 나머지는 규모 6.5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이 받은 충격은 규모 6.5 정도였다.

이은철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이 받은 충격은 규모 6.5 정도였다.

박방주 시민단체들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그만 가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신헌 고리 1호기는 30년이 넘었지만 많은 설비를 개선하고 바꿨다. 새 발전소를 만든 격이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수명 연장 뒤 3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다.

이은철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관련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를 느꼈다. 한수원이 공기업이라 다행이다.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한다면 돈 생각 안 하고 뜯어고친다. 고리 1호기는 건물과 원자로 용기만 옛날 것이지 나머지는 다 고쳤다.

박경덕 국내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의 격납용기는 차이가 있나.

강신헌 후쿠시마와 우리 원전의 격납용기 벽 두께는 비슷하다. 그러나 내부 용량에서 한국 것이 3배 정도 크다. 또 한국 격납용기는 미국에서 팬텀 비행기가 시속 7백킬로미터 속도로 부딪치는 충격 실험을 했을 때도 견뎌냈다.

박방주 정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설화하려고 한다.

이재기 원자력 발전소가 20기를 넘고 추가할 계획이 있다면 원자력 규제는 독립기관에 맡겨야 한다. 규제 기관장이라면 자신의 최고 관심사가 원자력 안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업무 특성상 원자력 안전에만 매달릴 수 없다. 공무원들도 1년이 멀다 하고 바뀐다. G

글 ·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사진. 이요셉

좋은이웃 굿네이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

NGO는 다 외국인이 세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를 최근에야 돕기 시작했다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재난 현장에서 뭘 얼마나 돕겠나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굿네이버스를 모르시는 겁니다.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국제NGO
국내 최초 UN NGO 최고지위 획득
세계 최초 MDGs Award 수상

20년 전 한국에서 태어난 굿네이버스가
어느 새 스무 살 청년이 되어 지구촌의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후원문의 1599-0300 | www.gni.kr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전세계 24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Weekly공감이 본 지면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한국기원 신임 사무총장 양재호 九단

“한국바둑 되살리기, 지금이 승부처”

우리나라 젊은층의 바둑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다. '바둑위기설'마저 나오고 있다. 이때 한국기원 새 사무총장이 된 양재호 九단에게 바둑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개혁의지' 때문이다. 그의 승부수를 들어봤다.

조선DB

한국기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양재호 九단. 부드러운 이미지 뒤에 강인함이 숨어 있다.

양 九단은 제1회 동양증권배세계대회에서 우승하던 20대 때 '울산의 수재'로 불렸다. 바둑TV의 명 해설가이고 작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팀 총감독으로 전 종목 금메달 획득의 금자탑을 이뤘다. 신임 사무총장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부드러운 외모와 다른 그의 '개혁' 이미지 때문이다.

지난 3월 23일 만난 양 九단은 “바둑은 지금 황혼이다. 명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여 국민의 스포츠로 되살려내는 일에 나를 불사르고 싶다”고 말했다.

바둑을 국민스포츠로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바둑이 스포츠라는 데 놀라는 사람이 아직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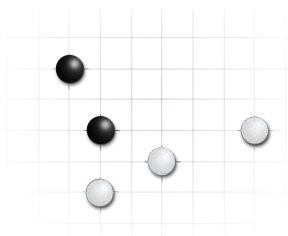
“바둑은 오랜 세월 어느 특정 영역에 속하지 않은 채 그냥 바둑이었다. 금기서화(琴棋書畵)란 말이 보여주듯 우리나라에선 대체로 예(藝)의 영역이었고 일본에선 기도(棋道)였으며 어떤 이에겐 잡기였다. 스포츠로 가게 된 것은 마인드스포츠(Mind Sports)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른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포츠로 여겨 창하오 九단이 '연도 최고 스포츠맨'으로 선정된 일도 있다.”

그래도 “바둑돌을 나르는 데 무슨 힘이 드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본적으로 스포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사격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데 무슨 힘이 드나. 오히려 힘이 들어가면 경기를 망친다. 그러나 정확하게 방아쇠를 당기려면 체력이 필수적이다. 바둑도 마찬가지다.

이세돌 九단은 바짝 마른 체격인데도 도전기 한 번 치르면 5킬로그램씩 체중이 빠진다. 이창호 九단은 이제 겨우 36세인데 체력이 달려 후진에게 밀리고 있다. 바둑이 몸이 아닌 머리만으로 하는 것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강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바둑경기가 치러지면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사라진 것에 감사하고 있다.”

그때 한국팀 총감독으로 나가 세 종목 금메달을 싹쓸이했는데.

“운이 참 좋았다. 한국과 중국은 전력이 팽팽했다. 언론에선 홈그

바둑이 스포츠가 되었으니 그에 충실하면 된다.
스포츠는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으로 한다. 은퇴도 있다. 실력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열린 마음과 프로기사의 기득권이 아닌
팬 위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프로기사 선후배 사이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운드 이점도 있고 해서 오히려 중국 우세를 점치기도 했는데 선수들이 힘든 고비마다 극적으로 승리를 만들어냈다. 감동적이고 행복한 추억으로 영영 남을 것 같다."

감독으로서 국민에게 준 감동이 사무총장 자리까지 이어진 것 같다. 바둑의 장점을 이야기해 달라.

"유소년의 두뇌개발 효과는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됐다. 분석능력과 종합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바둑을 두는 어린이가 바둑을 두지 않는 어린이보다 발전 속도가 빨랐다. 또 중독성 강한 전자 게임과는 차원이 다른 양질의 게임이고 오히려 전자 게임의 중독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익한 게임이라는 점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바둑은 또 서울대의 임상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치매 예방에도 좋다. 바둑을 즐기는 데는 돈도 들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를 피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바둑은 더욱 필요한 국가적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그 점을 꼭 알아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유소년층은 물론 젊은층의 바둑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다. 그게 바둑 위기설의 본질인가.

"그렇다. 젊은층의 유입이 줄어드는 것은 인체로 치면 실핏줄이 죽어가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무수한 대회가 열리고 이창호, 이세돌 같은 스타가 활약하니까 일견 화려해 보이지만 그건 오랜 세월의 축적 덕분이고 곳간의 바닥이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은 각계각층에 바둑 애호가들이 포진해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10년쯤 지나 그분들이 은퇴한다면 바둑의 우군은 대폭 줄어든다. 이 점도 심각하다."

그렇다면 위기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유소년 보급, 청소년 보급, 직장바둑 활성화 등에 모든 전략의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프로 대회는 더 재미있고 치열하게, 임기응변의 대국 일정 등 행정시스템은 팬 위주로 대폭 개편해야 하고 우선 대한바둑협회(아마추어)와의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바둑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 기사들에게 더 많은 시합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를 위해선 한국리그를 더 키워야 하고 새 대회도 유치해야 한다.

바둑의 스포츠 토토 진입도 서둘러야 한다. 한마디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중국 일본의 수뇌부와 머리를 맞대고 룰 통합 등 공동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바둑으로 치면 지금이 승부처다. 두려움마저 느낀다."

역대 총장들은 프로기사들의 복지 문제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보급에 전력하면 저절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복지를 위한 보급이 아니라 보급을 통한 복지다. 일하지 않는 복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국기원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개혁이란 별 게 아니다. 바둑이 스포츠가 되었으니 스포츠의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 스포츠는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으로 한다. 은퇴도 있다.

실력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문을 개방하는 열린 마음, 그리고 프로기사의 기득권이 아닌 팬 위주로 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다. 그 점을 위해 프로기사 선후배 사이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무총장은 방송 해설은 물론 시합 출전도 안 된다. 프로기사로서 아쉽지 않은가. 수입도 많이 줄 것 같은데.

"사무총장은 욕먹는 자리다. 아내도 그 때문에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바둑이 잘못되면 내 인생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일을 맡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바둑 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나는 살아오면서 많은 팬을 만났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한국기원, 바둑TV, 인터넷 바둑사이트, 프로기사, 아마기사 등은 모두 한 배를 타고 있고 그 배는 팬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일하는 내내 이 초심을 잊지 않겠다." G

글 · 박치문 (중앙일보 바둑전문 기자)

"한밤중에도 노숙인 도울 수 있다면…"

공직사회의 새 구심점으로 떠오른 '지방행정의 달인' 연재 두번째는 '행정분야의 달인'들이다. 한밤 노숙자들의 SOS 전화에도 달려 나가는 '노숙인 계도의 달인'에서부터 '주민 취업지원의 달인'까지 4인의 달인을 소개한다.

허재성 기자

'노숙인 계도의 달인' 이명식(가운데)씨는 노숙인들이 자활의지를 가질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숙인 계도의 달인 서울시 중랑구 사회복지과 **이명식씨**

꾸준히 자활돕자 노숙인들도 '형님'처럼 따라

서울 중랑구엔 '노숙인들의 형님'이 있다. 바로 중랑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이명식(58)씨가 주인공이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진행됐던 '제1회 지방행정의 달인'에서 '노숙인 계도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선정 소감에 대해 그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8년 중랑구 사회복지과로 발령 후 13년간 노숙자 시설 입소(연 1백명), 병원인계(연 1백10여명), 노숙자 관련 민원처리 및 순찰로 연 1천5백여 명을 계도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달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발령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로 거리에 노숙자들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원래 노숙인이었던 사람들보다는 실직 후 집에 못 들어가는 '노숙인 아닌 노숙인'들이 많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노숙인이 증가하니 그의 업무량도 몇 배로 증가했다. 초창기에는 아침부터 지하철 역사, 공원 등을 돌아다니며 계도하다 술 취한 노숙인들의 난동에 연루되기도 했고, 노숙인에게 멱살을 잡히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노숙인들이 밀집한 지역을 차례대로 돌며 계도하다 보면 함께 노숙인이 돼 가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노숙인 계도를 게을리할 순 없었다. 동상에 다리가 썩어 가는 노숙인을 병원에 인계해 치료를 받게 도와주고, 자활의지가 엿보이는 노숙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을 도와줬다. 그런 그의 노력이 차츰 노숙인들 사이에서 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이 이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올 정도다. 이 같은 노력이 알려지면서 지난 1월에는

특별승진도 했다.

"겨울철 동사하는 노숙인이 생기거나 불치병에 걸려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가족들에게마저 버림받는 노숙인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이씨는 정년퇴임 1년을 앞둔 지금 "노숙인 계도 업무를 담당해 줄 훌륭한 후임자 한 명 양성해 놓고 마음 편하게 퇴임하는 게 소원"이라고 전했다.

도시 재개발의 달인 서울시 구로구 도시개발과 **문대열씨**

가정방문 하며 주민 설득해 교정시설 이전 성공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 없이 지역의 기피시설인 교정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시킨 공무원도 있다. 서울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문대열씨의 이야기다. 그는 구로구 고척동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던 '영등포 교정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데 기여했다.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시설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없어 법무부도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던 문제였다. 문씨가 제시한 해법은 '관내 이전'이었다. 어차피 다른 시·구로 옮기기 어렵다면 구로구 외곽 개발제한구역인 천왕동 천왕산 인근으로 옮기자는 내용이었다.

법무부의 예산지원 없이 모든 절차를 구로구가 주관하기로 약속하고 본격적인 이전절차를 진행했다. '도시 재개발의 달인'의 진가는 주민 설득에서 빛을 발했다. 이주 대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재개발조합 간의 입장 차이를 끝까지 조율했다. 단 한 건의 강제집행 없이 주민동의를 이끌어 냈다.

일자리 창출의 달인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경제과 **이경수씨**

5년간 다문화가정 등 2천8백여명 직장 알선

충남 당진군청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이경수씨는 '주민 취업지원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2006년부터 5년간 일반구직자, 다문화가정, 노인 등 다양한 계층 2천8백2명의 취업을 알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동행면접을 추진해 36개 업체에 36명을 취업시켰다. 2008년부터는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면접을 시행하는 '구인·구직 매칭데이'도 추진했다. 이것으로 지난해 9월까지 67명이 취업에 골인했다.

유치원 원장을 하다 군청 일자리종합센터 상담사로 들어온 것은 2002년.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이 찾아오면 동행해 구직자의 장점을 대신 설명해 주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어렵게 사는 이주여성이 찾아오면 한국인으로서 미안했고 따뜻하게 대해 주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말한다.

다문화센터 이주여성들에게 직업의 종류를 설명하고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기, 면접요령 등 취업교육도 도맡아 오고 있다.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위해 건강가정사, 미술치료심리사 등 자격증도 땄고 현재도 계속 직업 관련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재취업을 돕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보상 프로그램 관리의 달인 부산시 남구 재무과 **김병석씨**

밤새 연구하며 전산프로그램 직접 개발 성공

"프로그램 개발 전에는 계산기와 볼펜을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 야근이 잦아졌어요. 보상금 산출 및 협의과정에서의 실수 등으로 민원 발생도 끊이질 않았죠. 고민한 끝에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게 됐습니다."

부산 남구 재무과 김병석씨는 '보상사업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그는 업무의 효율성에 회의를 느끼다 직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경우다.

전산 프로그램 관련 서적을 사들여 밤새워 연구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획기적인 보상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냈다. 하지만 엑셀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고 2006년 '엑세스VBA를 기반으로 한 보상 프로그램' 개발에 마침내 성공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국 지자체 보상 담당자들의 문의와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2008년부터는 분기별로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하면 연간 4백20억원의 일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는 "'행정의 달인' 선정으로 많은 공무원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 버전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박근희 기자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씨의 나눔과 기부

"가난을 겪었기에 장학사업에 더욱 애정"

신영균씨는 나눔과 기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인이다. 지난해 출연한 5백억원으로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올해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매년 설·추석에는 불우이웃에게 쌀을 보내고 있으며, 원로 영화인들을 위한 복지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신영균씨는 나눔과 기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인이다.

지난 3월 30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 21층 뷔페식당에 원로 영화배우 40여 명이 모였다. 신영균(83)씨가 총회장을 맡고 있는 '신우회'의 오찬 모임이었다. 황정순 고문, 남궁원·윤양하·이대근 회장, 이해룡·거룡 부회장, 김영인 총무, 전계현·조학자·조형기 이사, 김동호·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전·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영균 총회장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원로 영화배우들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신 총회장은 "처음에는 20~30명 정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40~50명으로 불어났다. 나를 비롯해서 최은희씨, 남궁원씨 등이 돌아가며 식사 제공을 했는데, 오늘은 배우 겸 가수 장나라씨와 부친 주호성씨가 내는 날"이라고 말했다.

황정순 고문은 "모두들 건강을 유지해서 만남의 기쁨을 유지하자"고 말했고 조형기 이사는 "오늘 모임에서는 내가 막내지만 앞으로 후배 배우가 많이 참석해서 중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영화인 자녀 19명에 올 상반기 장학금 전달

신 총회장은 신우회 모임뿐만 아니라 쌀 보내기, 장학금 지급 등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신 총회장은 지난해 문화예술계를 위해 5백억원의 사재를 기부했다. 작년 10월 출연해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을 출범시켰다.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그의 사재로 설립된 재단으로,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영화계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올해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사장 안성기)'을 통해 장학금 지급이 이뤄졌다.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에서 예술문화재단 현판식과 함께 영화인 자녀 19명에게 2011년도 상반기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영화인회의 등 8개 영화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영화인 자녀 이동규(서원대 유아교육학과 1학년) 등 대학생 10명과 홍민호(경복고 3학년) 등 고교생 9명에게 4천여 만원의 장

학금을 지원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학사업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인들의 작업 환경이 아직도 열악합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와 보탬이 된다면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 신 총회장은 "명보시네마테크 운영, 신영균연기예술상 제정과 함께 영화 인재 발굴 사업으로 청소년 영화제 '필름 게이트'와 방학 시즌 어린이 영화 체험 교실인 '꿈나무 필름 아트 캠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에는 제1회 신영균영화연기대상 수상자가 처음으로 나올 예정이다.

신영균씨가 원로배우 황정순·남궁원씨와 건배를 하고 있다.

연말엔 신영균영화연기대상 첫 수상자 나와

그의 나눔과 기부 사례는 이전에도 많았다. 2006년 부인 김선희(77)씨와 금혼식(결혼 50주년)을 맞은 신 총회장은 가족과 친지를 초대하는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돌연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한 신문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쾌척했다. '화려한 행사를 벌여 돈을 없애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2010년 초에는 아이티 지진 피해 주민 돕기 성금으로 10만 달러를 내놓았다. 그의 결정에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성원도 한몫했다.

"저는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집사람에게 기부 얘기를 하자 제게 '장한 일을 했다'고 격려해 줬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속이 깊고 효자입니다. 딸은 '아버지, 멋쟁이'라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 존경해요'라며 기뻐했습니다."

신 총회장은 자신도 가난과 배고픔을 몸소 겪었기에 연기에 자질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청춘극단'에서 2년 동안 연기를 하다가 서울대 치과대학에 진학했다.

해군 대위로 군복무를 마친 그는 1958년 서울 회현동에 '동남치과'를 개업했으나 도저히 끼를 못 버려 2년 뒤 황순원 원작 〈과부〉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 연극을 했는데 생활이 영 말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전망이 좋다는 치과의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에 대한 꿈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데뷔작 〈과부〉에서 처음 주연으로 발탁될 당시를 회고하며 그는 "배역도 좋고 작품도 좋았는데 머리를 잘라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많이 고민했지만 순전히 연기에 대한 욕심 하나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억의 명소 명보극장 영원히 보존 결정

신 총회장은 배우 시절 영화배우라는 직업을 늘 불안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1960년대 친구와 함께 서울 금호동에 동시상영을 하는 '금호극장'을 지었다. 이후 명보극장 바로 옆에 있는 명보제과를 인수했다. 이때 부인 김선희 여사가 직접 빵을 굽고 장사도 하면서 사업을 키워 나갔다. 당시 명보제과는 뉴욕제과, 태극당, 풍년제과 등과 함께 4대 제과점으로 꼽혔다.

1977년 8월에는 명보극장을 인수했다. 그가 지난해 기부 대상을 '명보극장'으로 정한 것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스카라극장이 헐린 자리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섰어요. 명보극장도 팔라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것마저 허물어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 대표작인 영화 〈빨간 마후라〉 〈연산군〉도 개봉했고요. 가족회의에서 아들이 '건물을 영원히 남겨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 총회장은 배우를 그만둔 후에는 제주도에서 영화박물관 건립에도 열정을 쏟았다. 영화는 1967년 제주도에서 촬영됐는데 당시 그는 드넓은 초원에서 영화박물관을 생각하게 됐다. 결국 1999년 제주 남원읍에 '신영영화박물관'을 건립했다. G

글·서일호 기자/사진·이경민 기자

성공창업을 꿈꾸는 G20세대에게 전해 줄 말은?

“도전 자체를 즐기고 만족을 느끼세요”

G20세대의 키워드는 ‘도전정신’이다. 꿈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바로 G20세대가 지향하는 삶이다.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액 연봉의 경영컨설턴트로 일하던 김범석씨는 돌연 직장을 그만두고 벤처회사를 설립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으로 향하려던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 ‘쿠팡’이란 소셜커머스 기업을 세웠다. 끊임없는 도전 속에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G20세대에게 희망과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쿠팡

도전하는 삶을 실천하는 벤처 경영인 김범석 대표는 G20세대에게 도전을 즐기라고 조언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쿠팡 대표이사가 과연 나를 만나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쿠팡’ 사무실에 들어섰다. 설립된 지 1년도 안된 회사였지만 커다란 사무실에는 1백 80여 명의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범석(32) 대표이사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김 대표의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로 꼽히는 쿠팡은 올해 3월 업계 최초로 회원 2백만명을 돌파했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같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2008년 미국의 그루폰(Groupon)이 설립된 후 세계적인 붐이 일고 있다.

박지현 (이하 박) 하버드대 출신으로 벤처회사를 설립했는데, 쿠팡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김범석 (이하 김) 예전에 벤처기업 ‘빈티지 미디어’를 운영할 때와 같이 열정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발견한 것이 소셜커머스입니다. 소셜커머스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광고와 홍보 부담을 줄여 주고, 소비자에겐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박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요.

김 한국은 많은 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곳입니다. 정보기술(IT)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세계 1위인데다 인구 대비 소비력이 매우 높으니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성실하고 똑똑합니다. 하지만 많은 창업자가 자본조달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미국은 투

도전정신의 경영인인 김범석은

경력 쿠팡 대표이사(2010년 5월~현재) / 미국 벤처기업 ‘빈티지미디어’ 대표(2004~2009년) / 미국 보스턴 컨설팅그룹 컨설턴트(2002~2004년) / 미국의 유스매거진(Youth magagine) ‘커런트(Current)’ 대표(1998~2001년)
페이스북 Coupang.korea / **트위터** coupang

자가 다각화돼 있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투자 대상 열에 여덟은 실패를 가정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투자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투자를 받더라도 기대와 부담감이 높아 선뜻 창업에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 또한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의 부족으로 투자 다각화를 할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앞으로 쿠팡을 어떻게 키워 가고 싶으신지요.

김 현재 소셜커머스는 '반값'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저의 목표는 '다채로운 문화생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셜커머스는 소비자와 광고주 모두를 만족시키고 좋은 고객 관리와 환불 정책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를 갖춘 소셜커머스는 비즈니스 모델로 앞으로 더욱 큰 성장을 할 것이며,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쿠팡은 반값할인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모델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쿠팡 사무실에서의 회의 모습.

박 벤처기업인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것인지요.

김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은 창업을 꿈꾸는 G20세대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인력과 자본이 원활하게 순환되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혁신을 막는 장벽도 허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을 설립해 도전하고 실패하기를 몇 번 반복하고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성공적인 회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한국도 도전을 꿈꾸는 G20세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벤처인을 위한 안전망이 잘 구축된다면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벤처 운영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박 대표님의 말씀처럼 되어 '제2의 마크 주커버그'를 꿈꾸는 한국의 G20세대가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G20세대가 요즘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기부, 봉사 같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쿠팡도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기업 모델입니다. 단순히 기존 아이템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도 보컬 레슨, 승마 레슨, 오페라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했을 때 오는 보람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근본적으로 기업의 사명이 사회적으로 이롭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창업을 꿈꾸는 G20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김 성공과 실패를 떠나 도전 자체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이 파악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재미를 느끼는 일부터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들 안정만을 찾아 경쟁한다면 한국 사회는 불안정한 멈춤상태(stagnation)에 이르게 되겠지요. 한국의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자원의 효과적인 순환을 위한 G20세대의 노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열정으로 도전을 하세요. 20대는 얼마든지 자신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김 대표는 내가 상상했던, '엄친아'의 스펙을 가지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기업대표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고 소탈했다. 유학생활 동안 이삿짐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헝그리 정신 때문일까.

창업 당시 그는 언제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고 했다. 성공보다는 도전을 위한 삶을 지향해 온 김 대표는 경쟁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적 도전정신에 불타는 진정한 G20세대 경영인이었다. G

글 · 박지현 (하버드대 경제학과 재학중 · 페이스북 JiHyeam, 트위터 iamthejiji)

상병 김정우 스트라이커 '전입 신고'

K리그 관중도 47.7퍼센트나 늘어… 경기당 평균 1만7천여명

약동하는 봄 기운처럼 프로축구 K리그에도 생기가 감돈다. 그라운드에 팬들이 몰려들고 있다. 3월에 정규리그는 3라운드에 걸쳐 24경기가 열렸는데,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42만6천8백33명이나 됐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7천7백85명으로 전년 동기(평균 관중 1만1천9백60명) 대비해 47.7퍼센트나 증가했다. 고무적인 스타트다. 출범 후 29주년을 맞은 K리그가 한 뼘 더 성장한 듯 보인다.

조선DB

이수철 감독이 이끄는 상주에서 공격수로 변신한 김정우. 공격수로 변신한 그는 현재 득점 1위에 올라 있다. 사진은 성남 국군체육부대 운동장에서의 경기 모습.

결국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건 사람 아니던가. 초반 흥행은 K리그에 출현한 새로운 별들의 덕이 크다. 특히 한국 나이론 서른의 적지 않은 나이에 포지션을 바꿔 곧바로 성공시대를 쓰고 있는 육군 상병 김정우(29·상주)의 변신, 그리고 성공적인 조기안착은 놀랍다.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깜짝 변신한 것도 모자라 경기마다 골몰이를 하고 있다. 그간 중앙 미드필더로 뛰며 감독들이 신뢰하는 보이지 않는 살림꾼 역을 도맡았던 그는 화려한 플레이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수철 감독이 이끄는 상주에서 공격수로 변신했다. 제대로 쓸만한 공격수가 없어 내민 고육지책의 카드였다. 그래서 변신이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었다.

K리그 개막 미디어 데이에서 "초등학교 때 공격수로 뛰어본 경험이 있다"며 "득점왕에 욕심을 내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군인정신에 입각한 사내의 호기로만 읽혔다. 그러나 그라운드에 뛰어들자마자 정규리그 3경기에서 연속골을 이어가며 4골 1도움을 기록해 득점 1위로 올라섰다.

'멀티 플레이어'로 국가대표 복귀

2003년 울산에 입단했다 2006년부터 2년간 일본 J리그 나고야에서 활약했던 김정우는 2008년부터 성남의 붙박이 미드필더를 맡았고 2010년 상무에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K리그에서 7년째지만 줄곧 미드필더로 뛰었던 터라 골도 적었다. 시즌 최다골은 2008년과 2009년에 기록한 5골이었다. 올 시즌 공격수로 변신하기 무섭게 골몰이도 부쩍 늘어났다. 3월에만 4골을 터뜨려 개인 한 시즌 최다골 경신은 시간문제다.

공격수 변신으로 반전 드라마를 쓰며 스스로 가치도 끌어올렸다. 남아공 월드컵 당시 붙박이 중앙 미드필더였지만 이후 군 소집 훈련 등으로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대표팀 승선이 불발된 적이 많았는데, 올 시즌 초반 활약 속에서 3월 25일 온두라스와 국가대표팀 간 경기에 발탁돼 추가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대표팀에선 최전방 공격수 대신 공격형 미드필더로 보직을 다시 바꾸며 '멀티 플레이어' 자질을 뽐냈다.

J리그에서 K리그로 돌아와 숨겨놓았던 재능을 떨쳐 국가대표팀과 올림픽팀에 발탁된 신생팀의 박기동(23)과 김동섭(22·광주), 이미 아시안컵을 통해 K리그 블루칩으로 등장한 지동원(20), 그리고 그의 '닮은꼴' 후배 이종호(19·이상 전남), 가는 곳마다 여성팬들을 몰고 다니는 윤빛가람(21·경남) 등도 올해를 열고 있는 스타들이다.

박기동과 김동섭은 한때 J리거로서 국내 축구팬들의 눈 밖에 있었지만 K리그 무대서 깜짝 반등했다. 동갑내기 이청용(23·볼턴), 기성용(22·셀틱), 구자철(22·볼프스부르크) 등 '황금 세대' 틈에 끼여 그간 주목받지 못한 박기동은 연령대 대표팀에 6번이나 소집됐지만 정작 대회 본선에는 한번도 나서지 못했다.

박은호·아사모아 등 특급 용병도 새 흥행카드

지난해 일본 J2 FC기후에 입단했지만 허벅지와 발목을 잇달아 다쳐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좌절했다. 그리고 K리그로 돌아와 초반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엮어냈다. 인생역전이었다.

김동섭 역시 2007년 당시 18세의 나이로 J리그 시미즈에 입단해 청소년(20세 이하) 대표팀으로 2009 U-20 월드컵에도 나갔지만 2009년 8월 J2 도쿠시마로 임대된 뒤로는 활약이 미미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발탁되지 못했다. 실패를 곱씹으며 K리그로 돌아와 3경기서 3골 1도움으로 포효했다. 둘은 나란히 3월 국가대표팀과 올림픽팀에 발탁됐다.

이에 더해 브라질 출신 공격수지만 한국 이름으로 등록해 눈길을 끌더니 이내 연속 골을 터뜨린 브라질 출신 박은호(24·대전), 나이 서른에 아들만 다섯을 둔 이색 경력의 가나 공격수 아사모아(30·포항)까지 흥미를 더하는 외국인 선수의 등장도 볼거리로 다가온다.

이들은 기존 K리그 스타로 불렸던 유병수(23·인천), 설기현(32·울산), 김은중(32·제주), 이동국(32·전북) 등과 함께 새 흥행카드로 부상했다.

이 선수들은 골과 도움 등 실력으로만 뽐내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과거 신드롬을 낳았던 스타들처럼 실력 못잖은 수려한 외모를 지닌 것도 아니다. 재미난 '스토리'가 뒤를 받치고 있는, 이른바 '스토리 텔링형' 인물들이다.

더불어 K리그 각 팀들의 성적 끌어올리기용 '용병'으로 취급받던 외국인 선수들의 가치 변화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게 대전의 박은호다. 브라질 출신인 그는 본래 성은 바그너였지만, 대전 선수들이 장난삼아 "그너야~"라고 부르게 되자 등록명을 재치있게 '박은호'로 했다. 특이한 이름으로 관심을 끌던 그는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로서 장기를 발휘하며 약체 대전의 스타로 부상했다. 3경기에서 4골이나 터뜨려 이름값 떨치던 기존 외국인 선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

조선DB

"내 한국 이름은 박은호." 대전의 스트라이커인 브라질 출신 바그너는 화려한 골 세리머니로도 인기 만점이다.

포항에서 신바람을 일으키는 가나 공격수 아사모아 역시 아직 몸이 1백퍼센트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1백68센티미터의 단신에 빼어난 개인기와 스피드를 선보이며 금세 팬들에게 다가선 케이스다. 서른이지만 사내아이만 다섯을 둔 유부남인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새로운 스타들의 출현은 한국 축구의 열망이기도 하다. 한국 축구는 2010 남아공 월드컵과 2011 아시안컵이 끝나고 2014 브라질 월드컵, 2012 런던 올림픽을 겨냥한 새 판 짜기에 나서고 있다.

축구팬들 역시 가슴을 뒤흔들 새로운 스타를 갈망한다.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비롯해 이청용(23·볼턴), 기성용, 차두리(31·셀틱), 박주영(26·AS모나코), 구자철(22·볼프스부르크) 등 한국 축구의 걸출한 스타들이 모두 해외 무대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 부재로 가슴앓이를 하는 K리그 입장에서 새로운 스타들의 출현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G

글·오광춘(스포츠서울 체육1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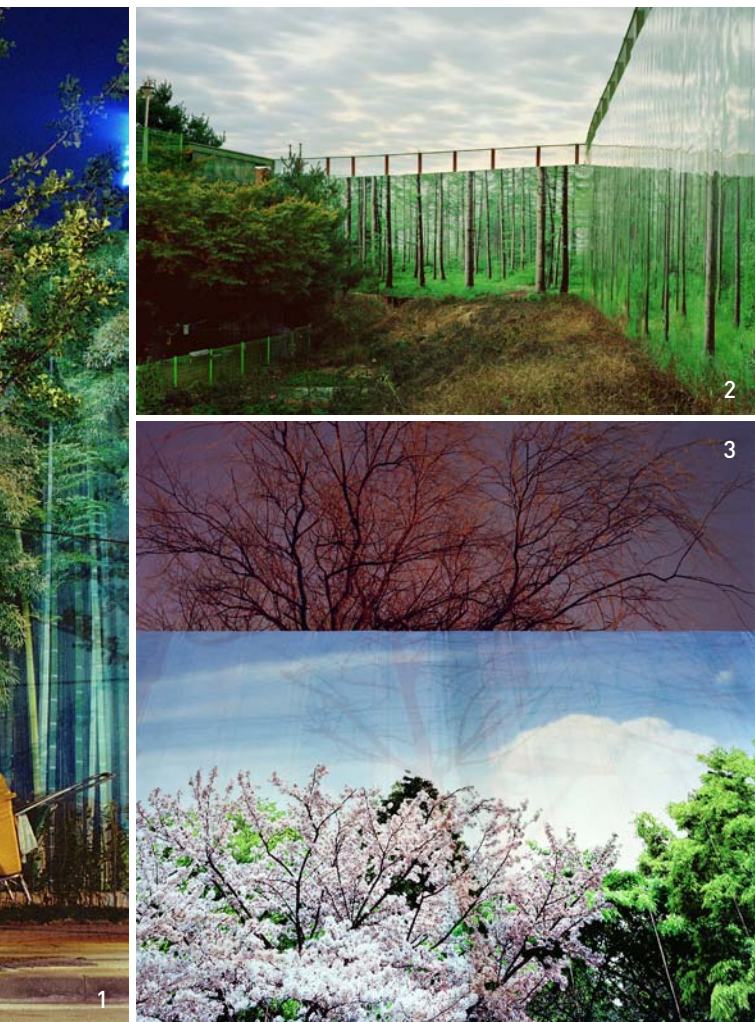
사진작가 임수현

자연을 닮은 펜스… 도시를 입히다

허름하던 벽도 그림과 함께하면 유명해진다. 최근 이승기가 기념촬영해 화제가 된 〈날개 벽화〉는 왕십리광장의 새 명물이 됐다. 그림이 그려진 공사장 펜스도 인기를 누린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공사장 펜스는 야간에 조명까지 비춰 연인들의 포토존이 됐다.

덕분에 도시는 거대한 전시장이다. 거리마다 설치된 조각품, 그림이 그려진 건물 외벽과 높다란 계단. 권위를 벗고 미술관 밖으로 나온 미술은 '공공미술'로 편안해졌다. 다양한 이미지로 삭막한 도시에 활기를 준다.

그런데 이게 과연 최선일까. 일상 속에 스며든 미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작가 임수현의 〈Fence〉(펜스) 시리즈는 그렇게 나왔다. 어느날 작가가 집으로 가는 길 '모순으로 가득한 현대'를 발견했다.

관악산 입구가 터널로 변하는 동안 공사장 펜스에 붙은 나무 사진을 봤다. 포토샵으로 나무들을 조합하여 이미지를 만든 후 크게 출력하여 펜스에 부착해 그 자리에 나무가 있는 듯이 나무

1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 GATE-2
2 광교명품신도시 소현초등학교
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공구
4 청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병풍을 만든 것이다.

'실제인 눈 맞은 하얀 나무'와 '실사 이미지인 하얀 벚나무'를 동시에 보고 겨울과 봄, 현실과 이미지의 대립을 느꼈다. 사진기를 들고 나와 촬영했다. 촬영은 주로 밤에 했다. 처음 촬영하게 된 계기가 밤의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컴컴한 밤에 가로등과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아 홀로 서 있는 펜스의 모습은 흡사 연극의 무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더군요."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서도 의문을 가졌다. "왜 하필 자연의 이미지일까?"

공사장을 돌아다녔다. 많은 공사장 펜스는 건물조감도나 시공사를 크게 강조한 광고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사 이미지는 전략이 숨어 있었다. 자연 이미지를 담은 실사 펜스는 공사기간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현장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작가는 "자연을 파괴하고 도시의 경관을 생각한 시공사의 양심"이라고 여겼다.

지난 3월 16~21일 서울 관훈동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연 임수현의 사진전은 이미지의 세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방형의 프레임인 핫셀로 촬영한 이미지들은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냈다. 정면 구도로 담아낸 이미지는 오히려 당당하다. 진짜(자연)를 가리는 가짜(펜스), 진짜(펜스 이미지) 같은 가짜(펜스).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꼬집는다.

"우리들 삶의 모습이 흡사 펜스 속의 나무들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조악한 실사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한 펜스처럼 우리들도 허망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G

글·박현주 (아주경제 문화부 기자)

장수왕의 중국 남북조 전략

양다리 외교로 '난적' 북위의 발목을 잡다

남송은 고구려에 망명한 북연의 황제 풍홍을 구하고자 7천명의 군사를 보내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도리어 대패했다. 풍홍을 돌려달라는 남송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장수왕은 북연의 망명집단을 내세워 북위가 버티는 북중국으로 진공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노련한 장수왕은 강적(强敵)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사로잡은 송의 장군을 돌려보냄으로써 송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438년 송나라(劉宋)의 문제는 풍홍을 구출하기 위해 고구려에 군대를 보냈다. 남조 송의 이 같은 행보는 풍씨 집단과 연결해 고구려를 위압해서 북위의 측면에 세력 근거를 구축하려는 의도였다.

왕백구 휘하의 송군을 실은 배가 요동만에 나타났고, 7천명이 상륙을 개시했다. 송군은 풍홍이 감금된 북평(瀋陽)의 안가로 진군할 작정이었다. 손수(孫漱)와 고구(高仇)가 이끄는 고구려 군대가 이를 막기 위해 출격했다.

하지만 고구려 군대는 송군에게 급습을 당했다. 고구려 역사상 양자강 남(南)의 군대와 벌어진 최초의 전투였다. 고구려 장군 고구가 여기서 전사했다. 하지만 송군은 고구려 영토 내부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고구려군과 그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연이어 벌어졌고, 군수품이 고갈되어 갔다. 얼마 가지 않아 송군은 궤멸했고, 송의 장군 왕백구가 포로로 잡혔다. 7천명의 송군 가운데 따뜻한 남쪽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고구려 장수왕은 풍홍을 결코 송에 넘겨주지 않았고, 송과 풍홍의 결합을 방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그는 북연의 망명집단을 내세워 북중국 방면으로 진공할 의도가 없음을 북위에 분명히 밝혔다. 장수왕은 멸망한 북연의 문제로 북위와 소모적인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다.

패장이 된 왕백구는 고구려 사절단과 함께 배를 타고 송으로 향했다. 그를 동아줄에 묶어 죄수를 호송하듯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고구려와 송은 서로 필요한 상대였다. 강적 북위를 두고 양국은 싸울 수 없었다. 고구려는 북위와 대립 관계를 지속하면서 남조의 송과 북의 유연과 관계를 맺는 한편, 서로 멀리 떨어진 송과 유연을 중개하기도 했다. 마침내 고구려와 북위의 적대관계는 462년 고구려가 사절을 파견하면서 해빙기를 맞았다.

사절은 송의 문제를 만나 말했다.

"왕백구 등이 제멋대로 고구려를 침범해 사람을 죽였으므로 이렇게 잡아 송환합니다. 저희 왕께서 처벌을 원하십니다."

송 문제는 왕백구 등을 일단 감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고구려 사절이 본국으로 돌아간 직후 석방했다. 현명한 장수왕은 왕백구 등을 잡아 처형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했다. 장수왕은 송과의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강적 북위를 견제하기 위한 노련한 선택

영민한 문제도 장수왕의 의도를 간파하고 고구려 사절의 요구대로 왕백구 등을 일단 감금했다. 두 군주는 정치에서 진실이란 윤리도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고구려와 송은 서로에게 필요한 상대였다. 강적 북위를 두고 양국은 싸울 수 없었다. 고구려는 북위와 대립 관계를 지속하면서 남조의 송과 북의 유연(柔然)과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장강의 송과 사막 이북의 유연을 중개해 주기도 했다. 〈위서〉 백제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고구려의 불의와 잘못은 한둘이 아니다. (고구려는 북위에 대해) 겉으로는 겸손한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흉악한 짐승의 저돌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고구려는) 남으로 유씨(송)와 통호(通好)하고, 혹은 북으로 연연(유연)과 맹약해, 서로 순치의 관계를 이루면서 왕략(북위의 땅)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당시 고구려는 유연·송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북위를 견제하고 있었고, 이는 변함없는 고구려의 정책이었다. 한반도 서남에 있는 백제조차도 알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사실이었다.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와 강력한 기병단을 소유한 북위가 송나라를 정복하지 못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회하 이남의 광활한 평지는 모두 물이 차 있어 북위의 기병이 진창에 빠져 꼼짝도 할 수 없다. 회하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바다와 같은 양자강이 있다. 바다를 보지 못한 유목민 북위 사람들이 수전에 능숙할 리 만무했다.

장수왕은 포로가 된 남송의 장군을 죽이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했다. 북방의 강적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송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이철원

제약은 또 있었다. 사막 이북에 유목제국 유연이 버티고 있었다. 유연의 성장 과정은 북위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연속이었다.

서로는 서역의 언기(焉耆)에서 동으로는 만주와 접한 흥안령에 이르는 북아시아를 제패한 이후에도, 유연은 북위와 상쟁을 지속했다. 양국 간의 대결에서 때로는 유연 군이 북위의 수도를 공격하기도 했고, 북위 군이 고비사막을 넘어 유연을 추격하기도 했다.

고구려·남송·북위 힘의 균형관계 유지

〈위서〉에는 북위가 사방으로 포위된 형세를 언급하고 있다.

〈북으로는 험윤(유연)이 침구해 올 위험이 있으며, 남으로는 형양(남조 송)이 복종해 오지 않고, 서로는 토욕혼의 막힘이 있으며, 동으로는 고구려의 어려움이 있어 사방이 평온하지 못하다.〉

북위는 유연과 남조 송을 상대로 장기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실례를 보자.

448~449년 북위는 유연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다. 그러자 송이 그간 추진해 오던 북벌을 구체화했다. 450년 7월 송은 북위를 공격했다. 북위는 여기에 반격을 가해 송군을 격퇴했고, 그해 9월 태무제는 송에 대한 원정에 착수했다. 송군이 밀렸고, 12월 북위군은 송의 수도 근방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초원에서 유연이 움직임을 보이자 이듬해 1월 북위는 송과 평화협상을 체결하고 북으로 철군했다.

451년 1월 남쪽에서 회군한 북위 군은 그해 6월과 10월에 북쪽 음산으로 이동해 유연에 대해 무력시위를 했다. 북위 군이 송에 대승한 후 곧 회군한 주된 요인은 송과 장기전을 벌일 경우 염려되는 유연과 고구려의 침공을 의식한 것이었다. 북위의 태무제는 우려하던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분통을 터뜨렸다. 카리스마를 소유한 전사 황제인 태무제가 전쟁터에서 적에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바보스런 모습을 보였다.

고구려와 북위의 적대관계는 462년 고구려가 사절을 파견하면서 해빙기를 맞았다. 465년 이후부터 고구려는 북위에 매년 사신을 파견했고, 그에 부응해 북위 사신이 빈번하게 내방하는 등 양국 간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됐다.

그해 북위 문성제(452~465)가 죽고 풍태후(馮太后)가 막후 실력자로 등장했다. 태후 풍씨는 북연 황제 풍홍의 손녀다. 고구려 장수왕은 438년에 풍홍과 그의 자손 10명을 참살한 바 있었다. 고령이던 장수왕의 입장에서 풍태후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G

글·서영교(중원대 박물관장)

| 글 싣는 순서 |

어린이 유혹 색조화장품 몰아낸다

식약청, 어린이용 매니큐어 등 7월부터 제조·판매금지 조치

일러스트·유현호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의 화장품 코너, 화장품 전문매장은 물론 학교 앞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조·판매 금지'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섰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용 립글로스, 아이라이너, 매니큐어 등 색조화장품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립글로스나 매니큐어 같은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화장품법상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샴푸와 린스', '로션과 크림', '오일', '인체 세정제류',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러한 정책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색조화장품 판매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오는 7월 시행 전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어린이용 색조화장품 제조와 판매 금지 내용을 알리게 된다.

어린이들의 피부는 성인에 비해 얇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색조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가려움증이나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색조화장품을 바르면 화장품의 나쁜 성분들이 피부에 축적된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양준호 사무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제대로 된 선택 기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용 화장품이 국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마크윈', '미스몰리' 등 10대용 화장품 브랜드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입소문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10대 화장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성인보다 피부 얇아 가려움증, 발진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어린이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학교 앞 문구점에서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조잡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만화 캐릭터 등을 내세운 화장품 업체의 제품까지 등장했다.

초등학교 1, 4학년 자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 이시연(38·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는 "어릴 때부터 색조화장품을 쓰다 보면 화장품 내의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피부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로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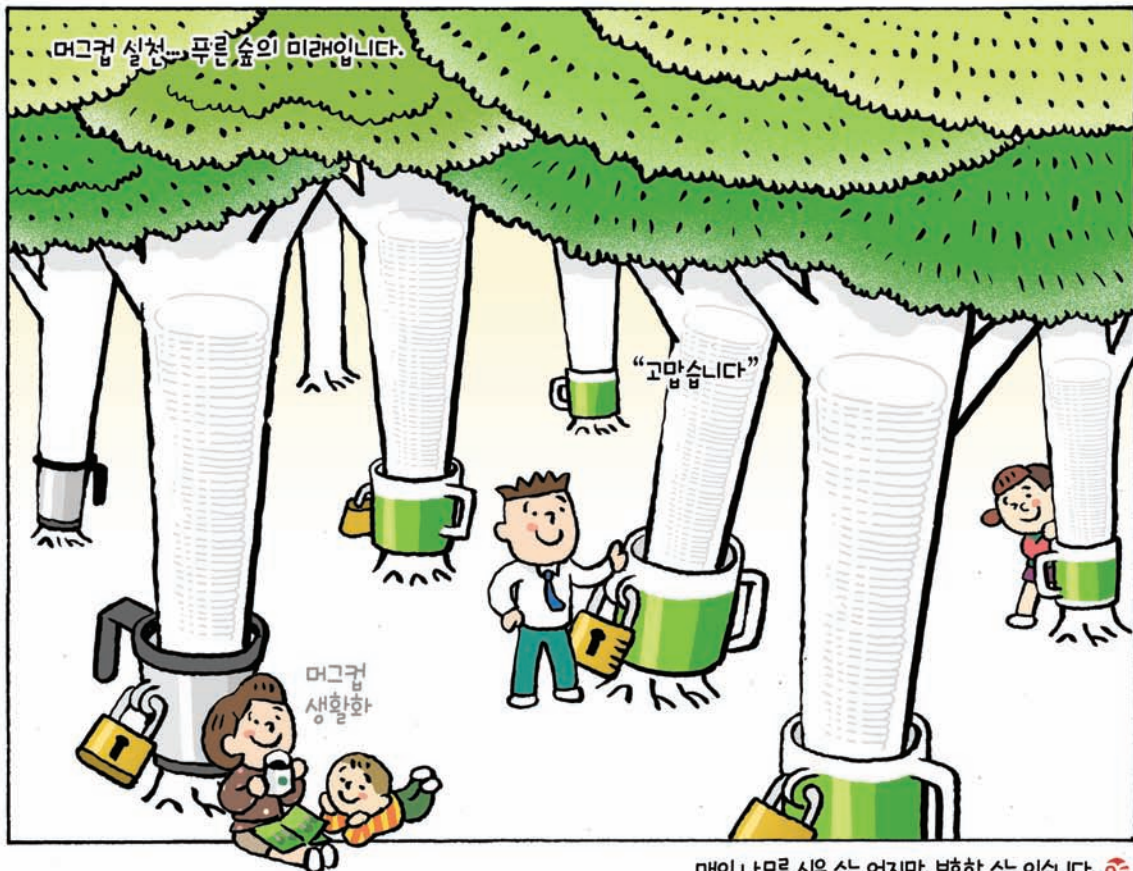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교육청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협회에 제조업체와 수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색조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나 도안 등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갈 계획이다. G

글·이윤진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043-719-3403·www.kfda.go.kr

고맙습니다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매일 나무를 심을 수는 없지만,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세번째 카툰집 〈마음 한번 바꾸면〉 펴낸 최영순 작가

"삶의 지혜 담은 카툰은 나의 반성문"

최영순 작가의 세번째 카툰집 〈마음 한번 바꾸면〉이 출간됐다. 그동안 〈마음 밭에 무얼 심지?〉, 〈행복 콘서트〉 등의 카툰집을 통해 10만 독자의 사랑을 받아온 그의 만화는 '명상카툰'이라 불릴 정도로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다. 첫번째 카툰집이 불교적 색채가 강하고 두번째 카툰집이 일상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면 이번 세번째 카툰집은 그 둘이 잘 조화된 작품이다.

"명상을 따로 배운 것은 아녜요. 스님이 운영하시던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낸 일상생활이 명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경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후원자 분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따뜻한 한마디가 바로 경전이더라고요."

이때의 영향을 받아 그의 만화는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그에게는 카툰 작업이 하나의 수행과도 같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카툰집을 처음 냈을 때 독자들로부터 인생상담 이메일이 수십 통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나 도사가 아닙니다. 이런 만화를 그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과 반성,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작업을 통해 내 안의 세속적 욕망 많이 순화

그는 삶의 반성문 같은 카툰 작업을 통해 자신 안에 가득했던 세속적인 욕망이 많이 순화됐다고 한다. 이 때문일까. 그의 만화에는 삶에서 직접 깨달은 지혜가 가득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만화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사실 그는 소설가 지망생이었다.

"고등학교 때 문학에 빠져서 모든 걸 작파하고 소설을 썼었죠."

고3 때는 동국대학교 문학콩쿠르 소설부문 장원을 받는 등 촉망받는 인재였다. 지금까지 쓴 작품만 30편이 넘는다. 타고난 이야기꾼인 그는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복사용지에 그린 만화를 책으로 묶어 친구들에게 빌려주기도 했을 만큼 인기가 좋았다. 그러던 그가 만화가가 된 것은 "우연"이라고 말한다.

고즈윈 펴냄 · 1만1천5백원

20대까지 소설만 쓰던 그는 건강이 나빠지고 생활고도 겪게 되어, 고향 강릉의 지역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시사만화가, 편집기자 등 다양한 일을 도맡아 하던 중 연말기획 취재차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된다. 그곳에 갔다가 그는 1년이 채 안 된 기자생활을 접고 사회복지사로 돌아선다. 1993년 겨울이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입양상담을 담당했어요. 입양은 가끔 있는 일이라 시간이 남아서 소식지를 만들었죠. 항상 두 페이지가 남아서 이걸 뭐로 채울까 고민하다 만화를 그리게 됐어요."

독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만화를 그려달라는 청탁이 이어졌다. 어느덧 그는 18년째 만화를 그리고 있다.

"이번 카툰집은 제 삶을 돌아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카누가 앞으로 나가려면 반대 방향을 보고 노를 젓듯, 인생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진짜 행복해지려면 뒤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 · 이제남 기자

단 한 번의 입김으로도

글과 그림 · 최영순

재앙은 모두 흥성할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번성할 때 미리 조심해야 한다. – <채근담>

책 한 권 안고 봄햇살 속으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이다. 포근한 날씨에 옷차림도 한껏 가벼워졌다. 이맘때면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이 거리 가득 피어나고 봄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진다. 가볍게 소풍 가는 마음으로 햇살 비치는 공원에서 책 한 권 펼쳐 보는 것은 어떨까. 이달에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좋은 책 선정위원 10명이 문학, 역사, 예술,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책 10권을 선정했다.

글 · 이제남 기자

하진 지음 · 왕은철 옮김
시공사 · 1만2천원

멋진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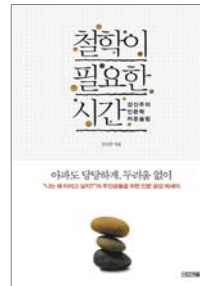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 문단을 매혹시킨 작가 하진이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어떤 사람은 몸을 팔고, 어떤 사람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한다. 그들은 언어소통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세대 간 문화적 차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문제 등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간다. 중국계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보여준다.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가운데, 삶의 매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소설 모음집이다."
추천 정과리 (연세대 국문과 교수)

강종훈 외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 각 1만8천원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5

정치사에서 생활사까지, 학계 각 분야의 권위자 17명이 3년간 집필했다. 강제 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의 위기와 대응, 일제의 폭압과 광복으로 이어진 격랑의 근대사를 담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수탈에서 민족 ·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까지, 착취당한 농민의 삶에서 모던 보이의 일상까지, 다채로운 역사의 궤적으로 초대한다.

"17명의 역사학자가 3년에 걸쳐 집필한 책으로 한국사를 동아시아와 세계사 관점에서 서술한 점이 돋보인다."
추천 김기덕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강신주 지음
사계절 · 1만7천8백원

철학이 필요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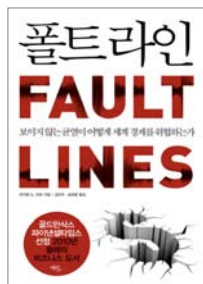
진정한 자신을 찾고, 지속 가능한 소통을 위해 48명의 철학자를 만난다. 니체, 스피노자, 원효, 데리다 등 철학자들의 인문 고전을 통해 참다운 인문정신을 보여준다. 저자는 자신의 삶에서 예를 찾아가며 자신이 얻은 교훈을 전달한다. 고민과 불안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솔직하게 삶에 직면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철학에 대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공부할 필요를 깨닫게 해준다.

"동서양 고전을 넘나들면서 주요 철학 개념을 쉽게 설명한 책이다."
추천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정외영 지음
이매진 · 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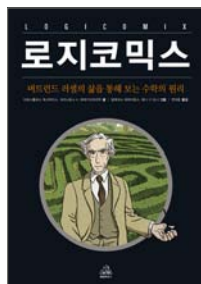
골목에 꽃이 피네

살기 좋은 삶터를 일구기 위해 만든 '녹색마을사람들'의 16년 이야기.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아줌마들이 삭막하고 황량한 생활공간을 정감 넘치는 이웃과 마을로 복원시키는 데 성공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열린 숙제방'에서 시작하여, '이웃 산타'와 '루돌프' 프로그램, '녹색가게', '친정언니 되기' 등의 활동을 담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환경운동을 녹여낸 경험을 담은 책이다."
추천 강정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라구람 G. 라잔 지음
김민주, 송희령 옮김
에코리브르 · 2만3천원

폴트라인

라구람 G. 라잔이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힌다. 지금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해 출판된 책들이 주로 진보 진영의 시각에서 저술된 반면, 이 책은 보수 진영의 시각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크게 차별화된다.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세 가지 고용 없는 성장, 국가 간 무역불균형, 영미식 금융제도와 독일·일본식 금융제도를 지적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우파적 시각을 담은 책이다."
추천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아폴스톨로스 독시아디스 외 지음
알레코스 파파다토스 외 그림 · 전대호 옮김
랜덤하우스 · 1만4천8백원

로지코믹스

20세기의 지성 버트런드 러셀을 한꺼풀 벗겨 만난다. '수학원리'의 집필자 러셀이 수리논리학자로 세기를 풍미하기까지의 여정을 만화로 그렸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관한 연구과정까지 러셀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주면서, 러셀이 평생 대답하고자 애쓴 질문들과 연관시킨다. 러셀의 역설, 괴델의 불완전성 원리, 집합론 등도 살짝 엿볼 수 있다.

"논리학의 대가 러셀의 삶과 학문적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만화 형식의 소설이다."
추천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경영기획실장)

민병일 지음
아우라 · 1만3천5백원

나의 고릿적 몽블랑 만년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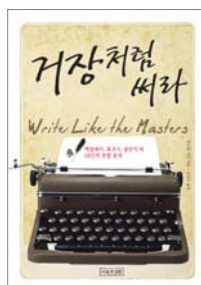
예술에 대한 동경에 이끌려 뒤늦은 독일 유학을 떠난 민병일의 산문집. 저자는 벼룩시장에서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해 낸다. 몽당연필, 필통, 은빛 도시락과 주전자, 독일 맥주잔과 맥주병, 고서, LP 원판들과 연필깎이 등을 예술학자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 책은 무엇이 예술인지 또 예술에 대한 애착이 무엇인지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게 해준다.

"주변에 있는 오래된 사물에 대한 애착을 사진과 맛깔스런 글로 표현하였다."
추천 이주은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교수)

조셉 조네이도 지음
구은혜 옮김
마고북스 · 2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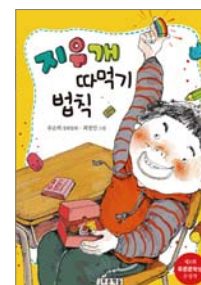
만들어진 아동

동화는 모두 어른이 쓴다. 그렇다면 어른의 눈높이에서 쓸 수밖에 없고 어른의 가치관이 투영되지 않을까. 이 책은 이런 의심을 밀고 나아가 성인이 아동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헨젤과 그레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친숙한 이야기와 아동문학에 묘사된 성인과 아동의 관계를 분석해 이들의 관계가 문명인/야만인, 노예 소유주/노예의 관계와 다르지 않음을 증명해 보인다.

"아동 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책"
추천 탁석산 (철학자)

윌리엄 케인 지음
김민수 옮김
이론과실천 · 2만3천원

거장처럼 써라

이 책은 어느 날 허공에서 뚝 떨어진 작가는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헤밍웨이, 발자크, 찰스 디킨스, 윌리엄 포크너, 마거릿 미첼, 조지 오웰, 이언 플레밍 등 21명의 문학 거장과 전 세계 독자를 휘어잡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글쓰기를 소개한다. 문체를 확립하고, 적절한 어휘로 글을 전개하며, 흥미로운 소재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세계적 문호 18인의 작품을 통해 작법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책이다."
추천 손수호 (국민일보 논설위원)

유순희 지음
최정인 그림
푸른책들 · 9천원

지우개 따먹기 법칙

어린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자란다. 이 책은 지우개 따먹기 놀이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의 이야기다. 물과 기름같이 다른 아이들이 지우개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상대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재밌게 그렸다. 이 책은 놀이의 승부를 지켜보는 재미도 주고, 놀이 법칙 속에 녹아 있는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가치관도 보여준다.

"지우개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융화되어 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렸다."
추천 오은영 (동시·동화작가),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의사에서 선교사로… 중년에 맞은 새 삶

영화 **소명 3 히말라야의 슈바이처 (2011)**

개봉일 2011년 4월 7일 **장르** 다큐멘터리
감독 신현원 **출연** 강원희, 최화순 **내레이션** 신애라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는 신현원 감독의 소명 시리즈로 아마존 선교사 부부, 모겐족의 월드컵에 이은 3편이다. 세브란스 출신 1호 의료선교사인 강원희(78)씨의 30여 년에 걸친 선교활동을 담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오지생활 30년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의사 부부의 감동스토리다. 6·25전쟁 때 이북에서 피란 온 강원희 선교사는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의대를 지원했다.

슈바이처의 전기에 감동을 받아 틈만 나면 무의촌(의사가 없는 지역) 진료를 했다고 한다. 병원을 개업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던 강원희 선교사는 몇 번의 큰 사고를 경험하고, 마흔여덟의 나이에 선교사의 길로 뛰어든다. 네팔을 시작으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히말라야 등 오지생활을 30년째 해 오고 있다.

무의촌에 가기 위해 고지대 산길을 걷고,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을 위해 가슴을 내리누르는 등의 장면들마다 강 선교사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한국에 올 때마다 첨단 의료기술을 익히고, 봉사하는 그의 마음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된다. 이번 영화에서 내레이션을 맡은 신애라는 "몸에 아팠던 경험이 영화를 더욱 공감하게 해 많은 감동을 받았다" 며 영화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영화는 4월 7일부터 서울, 일산, 인천 등 전국 15개 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사진제공 고천윤, SPM

다큐멘터리 속에서 강원희 선교사가 웃으며 진료를 하고 있다.

조선DB

미샤 마이스키

클래식 **미샤 마이스키 패밀리 콘서트** 우리 시대 최고의 첼리스트와 거장의 가족이 펼치는 따스함의 무대. 장한나의 후견인, 한국 가곡 녹음 등 인연 깊은 한국에서 딸 릴리, 아들 사샤와 함께 내한한다.

일시 2011년 5월 12일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대극장 **관람료** VIP석 15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장애인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7-7082

안젤라 게오르규 내한공연 세계적인 디바 안젤라 게오르규가 6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그간 더욱 깊어진 그녀의 음악 세계와 농익은 오페라 연기를 맛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2011년 4월 27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VIP석 22만원 R석 17만원 S석 13만원 A석 10만원 B석 7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주)마스트미디어 02-541-2512~3

연극열전사무국

조선DB

연극 **민들레 바람 되어** 이 세상 모든 부부들에게 바치는 가슴 따뜻한 러브스토리. 〈민들레 바람 되어〉는 창작초연 연극사상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웠다. 초연부터 매 공연 전석매진을 기록하면서 2011년 한국공연예술센터 걸작공연시리즈에 선정됐다. 〈민들레 바람 되어〉는 평범한 남자 안중기의 일생을 통한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시대 부부들이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이야기로 풀어냈다. 정보석, 조재현, 이광기 등의 연기파 배우들을 만날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29일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관람료** R석 4만5천원 S석 3만5천원 발코니석 2만5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66-6007

강풀의 순정만화 연극 〈강풀의 순정만화〉는 2005년을 시작으로 전국 관객 17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연극은 7차 앙코르 공연으로 새로운 각색과 연출로 다시 태어났다. 연우와 수영의 나이 차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배우들의 등장과 퇴장을 재치있게 표현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도 등장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원작의 탄탄한 구성과 연극의 생동감이 만나 지루할 틈이 없이 재미와 감동을 맛볼 수 있다.

일시 ~오픈런 **장소** 인아소극장 **관람료**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5천원 청소년 1만5천원 **문의** 1577-5878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랑은 비를 타고〉는 17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 받아 온 작품이다. 국내 소극장 창작뮤지컬로 일본까지 진출해 성공적인 무대를 펼쳤다. 홍록기, 라이언, 서지유, 김상미, 소유진, 김법래 등 마지막 무대를 빛내 줄 대한민국 간판 뮤지컬 스타들이 뭉쳤다. 한국뮤지컬대상 음악작곡상에 빛나는 최귀섭이 작곡하고 창작뮤지컬계의 대모 오은희 연출작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따스한 가족애와 가슴 시린 성장통으로 따뜻한 감성을 전한다.

일시 2011년 5월 29일까지 **장소** 충무아트홀 소극장블루 **관람료** A석 4만원 B석 2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엠뮤지컬컴퍼니 02-764-7858~9

삼총사 최고의 흥행 뮤지컬 〈삼총사〉가 부산을 찾는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명작 〈삼총사〉를 원작으로 탄탄한 스토리로 국내 정서에 맞게 재탄생했다. 초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유준상, 엄기준, 민영기를 비롯해 김무열, 서범석 등이 새롭게 투입되어 최고의 앙상블을 선보인다.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2011년 4월 16~17일 **장소** 부산시민회관대극장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30퍼센트 할인 **문의** 1600-1716

전시 **박물관은 살아있다** 역사체험 연극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연극이지만 객석이 없다. 무대 전체가 고분으로 꾸며지고, 관객이 고분을 탐험하는 형식이다. 고분 속 벽화의 사람들을 직접 되살려 내기도 하고, 역사 속 유명 인물들을 만나보는 등 주어진 '탐험과제'와 '연극놀이'를 통해 역사 속 이야기와 직접 소통하며 생생한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일시 2011년 4월 24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내 특설공연장 전시관 동측 마당 **관람료** 일반석 2만5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41-3581~2

정리·이미령 인턴기자

4월 첫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3월 20일~3월 26일

곡명	가수
1 직감	씨엔블루 (CNBLUE)
2 가슴이 뛴다	케이윌 (K.Will)
3 가슴 시린 이야기 (Feat. 용준형)	휘성
4 나 항상 그대를	윤도현
5 반짝반짝	걸스데이 (Girl's Day)
6 미친거니 (Feat. 방용국)	송지은 (시크릿)
7 Tonight	빅뱅
8 내꺼중에 최고	에이트 이현
9 아무일도 없었다	정엽
10 짝사랑	정엽

소개말은 진화한다

김미경 더블유 인사이츠 대표·아트스피치 원장

얼마 전에 한 지자체 지역행사에 초대받았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발대식이었는데 1천명 가까운 주민이 모였다. 젊은 주부부터 나이 든 어르신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다.

워낙 일 잘한다고 소문난 지자체이다 보니 장관, 국회의원까지 '높으신 분'들도 많이 보였다.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다. 사회자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를 시작으로 그날 참여한 수십명의 단체장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기 시작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청중은 박수치느라 어느새 시간이 10분 가까이 지나버렸다.

처음부터 김이 확 새버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바쁘신 분'들일수록 바쁜 일정 탓에 공식행사만 끝나면 자리를 뜨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날도 앞부터 5줄이 텅 빈 채로 2부 행사가 진행됐다. 열심히 박수쳐 준 주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것만큼 주최 측은 물론 청중을 김새게 하는 일이 없다.

내빈을 소개할 때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 윗분부터 순서대로 챙길 게 아니라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체 청중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예의다.

모임에서 내빈을 소개할 때 윗분부터 순서대로 챙길게 아니라 전체 청중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예의다. 그 다음 주요 인사를 소개하는 순서에선 짧은 에피소드를 덧붙이면 좋다. 올만한 사람이 왔음을 검증하는 효과는 물론 홍보도 되기 때문에 당사자도 좋아한다.

일러스트·남동윤

그 다음 주요 인사를 소개할 때는 "그동안 우리 시를 열심히 지원해 준 몇 분을 특별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살짝 센스를 발휘해 주는 게 좋다.

이때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라고 하기보다 "이번에 고생 끝에 예산을 따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데 큰 힘을 보태 주신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라고 형용사구를 붙여보자. 올만한 사람이 왔음을 검증하는 효과는 물론 홍보도 되기 때문에 당사자도 좋아한다.

"이 자리에 시장님보다 더 높은 분이 오셨습니다. ○○○시의장님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 시의 살림은 바로 마비됩니다."

이처럼 짧은 에피소드가 들어간 형용사구를 넣으면 소개가 맛깔나고 재미있어진다. 형용사구 넣는 하객은 10명 이내가 적당하다. 나머지는 10명, 20명씩 그룹을 만들어 단체와 이름만 딱딱 부르면 된다. 이렇게 소개하면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도 충실하게 전달하고 품위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함양군은 올해부터 내빈소개를 이런 식으로 바꿨다. 아예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모든 군행사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내빈 위주의 행사가 아닌 주민 중심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란다. 이런 함양군의 결정이 더 이상 '파격'이 아닌 '상식'이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확 바꾸겠습니다!

자연, 사람, 동물이 행복한

「청정 · 선진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발생 즉시 **축사에 드나드는 차량부터 통제하는 등** 초기대응을 강력하게 !

✔ 평상시에도 축산농장 **소독 · 출입 상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방역책임을 따져 보상**도 공정하게 !

✔ 입국과정에서 **소독을 강화**하여 가축질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

✔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매몰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걱정없게 !

✔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통합적인 방역관리 체제**를 확고하게 !

✔ **축산업허가제**를 내년부터 도입하여 친환경 선진축산을 더 내실있게 !

*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축산농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회용 나무?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은 일회용이지만
종이컵의 원료가 되는 나무는 20년을 자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한 해에 약 120억개 정도에
13만 2천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나무 4,800만 그루를 심어야 하는 양과 같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